

인천 최대의 중고차 판매단지
간석 자동차 매매단지
35개 상주 입주 · 자동차 인천 최대 보유
☎ (032) 872-0446

경시 40주년

기호일보

호흡기질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으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인천) 예약문의 032-890-8700

☀ 인천 7~15°C | ☀ 강화 5~15°C | 오늘의 날씨 <18면>

제7850호 2015년 11월 2일 (월)

kihoilbo.co.kr [인천판]

創刊 1988년 7월 20일

장사 40 기획
인천이 **中心** 이다

‘제헌국회’ 두 거목 통해 정치 네트워크 태동

3. 정치중심지 인천

대한민국 정계 역사 속 인천

인천은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사의 중심이었다. 대한민국 정치사 중심에 인천을 자리잡게 한 대표적 인물로 죽산(竹山) 조봉암(曹奉岩)선생과 삼연(三然)곽상훈(郭尙勳)선생을 꼽을 수 있다.

죽산은 2선의 국회의원과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며 삼연은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의회 의장과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조봉암·곽상훈 선생 당선 필두로 한국 정계 ‘핵심’ 배출에 큰 역할

성장한다. 이들이 정치 일선에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각인시킨 때는 해방 직후인 1948년 인천지역 제헌의원 선거다. 나란히 인천지역에 출마한 이 둘은 인천을 구에서는 좌익 진영의 조봉암이, 인천 갑구에서는 민족 진영의 곽상훈이 각각 당선된다.

1899년 강화에서 태어난 죽산은 강화군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나 일제시기 3·1 운동에 참여하는 등 인천의 대표적인 독

립운동가 중 하나다. 죽산은 제헌의원 당선 이후 국회 헌법기초위원장으로 헌법 제정에 참여한 뒤 대한민국 건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후 대한민국 제1대 농림부 장관과 제2대 국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하지만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맞대결해 30%의 지지율을 얻으며 정권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이러한 정치적 성장이 빌미가 돼 1958년 북한에서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일명 ‘진보당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교수형을 당했다. 당시에도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죽산의 사형선고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간접 혐의에 대해 전원 일치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복권됐다.

삼연은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삼연은 제헌의원 당선 이후 1949년 반민특위 위원에 임명돼 특위 검찰차장으로 활약했다. 1955년에는 민주당 당대에 참여해 민주당 신파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4대와 5대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또 이승만 정권 퇴진 후인 1960년 5월 17일부터 과도정부가 들어선 22일까지는 옛새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2면에 계속>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가을을 달린다 휴일인 1일 인천대공원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낙엽길 위로 자전거를 타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최만규 기자 cmg@kihoilbo.co.kr

인하대 박물관 전시 유물, 손도 못쓰고 치워졌다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물이 보관됐던 인하대 박물관 전시관이 텅 비어 있다.

문체부 지원 중단에 국립중앙박물관 귀속... 시·시립박물관 사실 몰라

인천의 대학이 발굴해 전시하던 청동기시대 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사실상 인천의 유물을 중앙에 빼

앗긴 셈이다. 1일 인하대학교 박물관에 따르면 인천 문학동과 당하동, 원당·불로동 등에서 출토된 청동기 토기와 철기 등 150여 점의 유물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현재 유물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 박물관의 자랑거리였던 청동기시대 유물의 빈자리는 민속품과 복제품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곳 박물관이 직접 발굴했던 인천 문학동, 당하동과 원당·불로동의 청동기시대 유물들을 전시하던 전시관이 텅 비었다.

인하대 박물관을 떠난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 서고로 들어간다. 더 이상 상설 전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인하대 박물관 관계자는 “중앙박물관 명령으로 유물이 박물관을 떠나는데 인천시나 시립박물관과 협의해서 불집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인천시 요청이 있었으면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해 전시할 수 있었다”며 “갑단선사 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유물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것들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학에서 전시 중인 유물이 국가로 귀속된 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대학 박물관 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나 시립박물관은 이곳 대학에 청동기시대 유물이 보관·전시됐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지는 것은 모르고 있어 사실상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최근 정책이 바뀌어서 지역 출토 유물은 시립박물관에서 관리하는데 인하대 같은 경우 예전에 출토된 것이다 보니 기존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시에서 요청을 할 수는 있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중 경제협력 강화

3국 정상회의 정례화도 노력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성과에 대해 “유동적인 역내외 정세 속에서도 3년여 동안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의 진전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개최된 것으로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틀인 3국 간 협력 체계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3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평화 협력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 사무국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3국 정부 간 협의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전자상거

래와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창조경제 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 회담을 지속해 재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3년 반 만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3국과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회의 성과를 평가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데 대해 합의를 했고, 3국 협력과 양자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중·한·일 협력과 중·중·일 관계를 고도로 증진시키겠다”며 “3국은 과거를 총정리하고 서로 마주 보며 걸어가 정치안보와 경제 발전의 두 바퀴를 같이 돌리는 큰 방향을 잘 파악하고 대화 협력으로 안정 발전 환경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연합뉴스, 세계를 연합하다!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 연합뉴스는 전 세계 83개 뉴스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60여명의 해외 취재망과 6개 외국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

청라 관통 '고가차도 건설비' 해법 어떻게 푸나

인천시,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비용 전가에 난감 "전례없는 요구, 330억은 정부·LH 몫" 다시 요청

인천시가 인천~김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두고 정부·한국도로공사(LH)와 마찰을 빚고 있다. 청라국제도시를 통과하는 1.74km 구간을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건설하면서 사업비를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와

김포시 양촌면을 잇는 총연장 28.57km의 민자 고속도로인 인천~김포간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 통과 구간을 놓고 인천시와 정부·LH가 마찰을 빚고 있다. 당초 청라국제도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지하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막대한 사업비를 이유로 1.74km

정도를 도심 지상을 통과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당장 청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관리감독을 맡은 인천경제청이 이 중 일부 구간을 도심을 관통하지 않고 고가도로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경제청 제안에 따른 고가도로 조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330억 원이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경제청을 소관하는 인천시가 요청한 사안인 만큼 전체 비용 중 절반인 165억 원

은 시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자 사업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 건설은 정부 책임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감사관실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전례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 때문에 시는 정부와 청라국제도시 사업을 추진한 LH를 상대로 비용 일체를 부담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LH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고속도로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돼 정부가 인천시에 비용 부담을 요청했고, 시도 예산 반영을 검토했으나 잘못된 것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부와 LH에 비용 부담을 요청하고 있다"며 "전체 사업비 330억 원의 절반은 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LH가 부담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협상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jih@khihoilbo.co.kr



본보 제5기 독자위원회가 10월 한 달간 지면평가와 제언의 자리를 가졌다.

창사 기념호 1면 편집 신선 기획보도 보강 지면에 활력

본보 독자위 15차 회의

기호일보 제5기 독자위원회 15차 회의가 지난달 29일 오후 본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10월 한 달간의 지면 평가와 제언을 위한 자리로, 이국성 독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상범·강욱업·권도국·신미송 위원이 참석했다. 본보 지면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한 전기식 편집국장은 "창사 40주년 기념호를 48면으로 발행했다"며 "1면은 깊은 고민 끝에 심플하면서도 창사 40주년을 가장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편집했고, 이달은 기획기사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이국성 위원장은 "주인 없는 인천 앞바다" 등 이달의 기획기사와 간혹 보인 지역기자들의 취재기사는 기호일보의 활성화에 좋은 징조"라면서도 "종합·메트로·동네방네 등의 면은 중심이 없는 것 같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12주년 관련 기사는 기사 양과 분석력, 깊이 등에서 조금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가 세련되고 보기 좋게 바뀌어 좋았고, 이제 많은 사람이 들어와 볼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주문한 문상범 위원은 "의미 있는 국경일 기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우면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기사가 필요하고, 대통령 인천 방문 등의 기사는 그 의미를 더

부각했으면 한다"면서 "요즘 외국관광을 하다 보면 한글 표기에 오류가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 기사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욱업 위원은 "경제면과 메트로면 편집은 여전히 기사의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후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 취재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있기에 문화·역사·과학 등 전문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기사화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도국 위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교사 사태, 국정교과서 문제, 경제·여성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의 기사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고, 또 특정인을 기사화할 때는 그 기사와 그 글에 대해 명확한 검증 후 기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면만 놓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 신미송 위원은 "최근 기획기사 중 '인천이 중심이다'의 디자인이 좋았다"면서 "기획은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 전문가를 만나서 생생한 기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획기사와 사진이 서로 다른 것이 많은데 이 부분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진의 선명도가 지면이 넘어가면서 떨어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유탁 기자 cyt@khihoilbo.co.kr

인현동 참사 다시는 없어야

이청연 교육감 16주기 행사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인현동 학생 화재참사 16주기를 맞아 당시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 교육감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뜰에 자리한 인천학생 화재참사 추모석과 위령비를 찾아 추모 화환을 전달하고 참배했다. 그는 "1999년 뜨거운 불길에 사라지고, 2014년 차디찬 물속으로 흘러간 어린 영혼들은 우리의 일부

이며, 우리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기에 그 영혼들을 기억할 때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지킬 수 있다"며 "오늘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안전과 좋은 문화와 충분한 여가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현동 화재 사건을 진정으로 기억하며 추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9년에 발생한 인현동 화재사고로 인천의 중·고교생 등 57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쳤다. 최유탁 기자 cyt@khihoilbo.co.kr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이 인현동 화재 참사 16주기를 맞아 사고현장 인근에 세운 위령비 앞에 참배하고 있다.

인천이 중심이다 3.정치중심지 인천

<1면에서>

이와 함께 윤석(雲石) 장면 선생도 인천의 정치를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하게 한 인물 중 하나다. 청소년기를 인천에서 보낸 장면은 4·19혁명 이후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의원내각제 하에서 1960년 제5대 민의원 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에서 제2공화국 총리로 집권했으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 9개월 만에 실각했다.

이처럼 인천은 5·16군사쿠데타 이전까지 국내 정치의 중심으로 굽적한 정치인들을 배출했으나

박정희 군사정권이 출범한 후부터는 국내 정치를 좌우할 이렇다 할 정치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6대부터 11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내며 11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효촌(曉村) 김은하 선생과 12대 국회부터 15대까지 4선을 지낸 심정구 전 의원, 18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4선의 이윤성 전 의원, 15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한 5선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황우여 의원 등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인천의 정치는 대표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머지 정치인이 힘을 합치는 형태였다"며 "구심점을 통해 중앙정부에 인천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인사

- ▶ 김두현 명 경기본사(안산 담당) 부국장 <11월 2일자>
- ▶ 윤영준 경기본사 사회2부(안산 담당) 부장 명 의원면직 <10월 20일자>

인천시, 조직문화 진단 예보나

중복회의·업무공간 부족이 문제

인천시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불필요한 중복회의'와 '업무공간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나타난 결과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진단은 유연근무제 이용률과 전자결재 활용률, 공유면적 비율, 인당 지식 및 정보 등록건수 등의 계량지표와 리더십 및 리더 역할, 개방 및 소통, 혁신지향 등의 비계량지표로 나눠 이뤄졌다.

계량지표는 해당부서의 자료를

활용했고 비계량지표는 설문조사로 진행된 총 1천57명이 참여했다.

진단 결과 전자결재 활용률, 법정근무 준수율, 연가실적은 우수한 데 반해 유연근무제 활용과 교육 및 지식·정보 공유 실적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됐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장이 노력했으며, 개인의 삶과 일에 대해 리더들이 균형 있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중복회의 개선과 충분한 회의실 공간, 장소에 구애 없이 일

하는 사무 공간 등 3개 항목은 낮게 평가됐다.

시는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타 부서와의 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통과 공감, 협업을 더욱 강화시켜 중복회의를 없애고 업무공간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조직문화 진단 개선 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www.tbroad.com

말씀생활의 상식 티브로드

디지털방송의 절대강자 티브로드

- ▶ 끝없는 볼거리! 210개의 최강채널!
- ▶ HD는 기본! 4배 더 선명한 UHD 화질!
- ▶ 영화가 생각날 땐 VOD! TV로 보는 최신영화!
- ▶ 기가인터넷과 결합하면 가격은 반값!

t-broad 인천방송 | 남동방송, 새롬방송, 서해방송

1877-7000

4자 합의 후속조치 '미흡'... 인천 시민단체들 반발

수도권해안매립 조정위 613억 원 이전·대체지 추진단 결정 이전규모 축소·반입수수료 폭탄 우려... 일각선 재협상 요구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수도권해안매립 조정위원회가 시작부터 뼈가 드러나고 있다.

당초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부지 매각대금으로 인천시에 2016년까지 주기로 했던 1천25억 원 중 485억 원이 기한을 넘기게 됐으며, 수도권매립지 추가 연장을 막기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 이행계획을 시행하는 수도권해안매립 조정위원회가 지난 30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다.

환경부 차관과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여한 해안매립 조정위는 이날 네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조정위는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가 보유한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양도를 위해 우선 환경부 지분을 인천시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지분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서울시의 부지 매각대금 1

천25억 원 중 200억 원과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매각 대금 413억 원 등 613억 원을 2016년까지 인천시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0%를 가산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공무원 3명과 전문가 8명 등 총 11명으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식 (새)서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서구 주민들은 지난 2010년 서울시와 환경부가 경인아라뱃길 건설 과정에서 받은 토지보상금 1천412억 원(서울시 1천25억 원, 환경부 387억 원) 전액을 매립지 주변지

역 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서울시는 2016년까지 보상금 전액을 인천에 주기로 약속했지만, 2013년 200억 원과 올해 140억 원, 내년 200억 원 등 540억 원만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로 20년 넘게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보상금을 서울시와 정부가 챙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울시 등은 대금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매립지에 재투자해야 하며, 인천시 역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시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50% 인상되는데, 오는 2018년까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까지 더하면 약 80%의 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결국 인천시민들은 매립지를 안고 살면서 서울, 경기와 같이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가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결정된 4자 합의 관련 기관별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해당분야에 대한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매립지 정책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ohoilbo.co.kr



동장군 오기 전 차량점검 필수 동절기를 앞두고 1일 인천시 남구청 주차장에서 무료 차량점검 행사가 열려 시민들이 부동액 교환, 와이퍼 교환 등 차량점검을 받고 있다. 최만규 기자 cmg@kohoilbo.co.kr

인천·경기도교육감 오늘 국정화 반대 1인 시위

청와대 앞 신문고서 릴레이로 뜻밖 들어

이정연 인천시교육감이 2일 오전 8시 청와대 앞 신문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에 나선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들 두 교육감의 시위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가량으로 계획돼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시위에서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뜻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문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 신년 기

사회견 때 밝힌 내용이다.

이 교육감은 "올바른 역사관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관을 수용해야 하는데 정부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역사관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인 시위와 함께 교육부의 국정화 교과서 고시에 대한 도교육청의 반대 의견과 도내 역사교사 91.58%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유태 기자 cyt@kohoilbo.co.kr

연수구 문화복지 전국 '우수'

행정부 '드림스타트' 고평가
인천서 유일하게 수상 영예

인천시 연수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문화복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연수구는 아동 학업 및 생활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를 우수 사례로 제시, 이 같은 성적을 거뒀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지방자치의 종합적인 행정 역량을 생산성 관점에서 측정해 지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국 19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관리·지방재정·지역경제·생활환경·문화복지분야 5개 분야에서 380여 개 사례가 접수됐다. 연수구는 올해 처음으로 30만 이



이재호 연수구청장

상 자치구에 포함돼 평가를 받았고, 인천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

또 구는 1회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하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5년 연속 수상은 31만 연수구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ohoilbo.co.kr

기호일보 창사 40주년 기념
행복전도사 최원영 교수와 함께하는 인문학 Concert

발칙한 심리학,
사랑 愛 (애) 눈을 뜨다.

2015년 12월 1일(화), 2일(수)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주최 | 기호일보
주관 | 극단 십년후, 다카스
후원 | 부평문화재단
문의 | 032-761-0001

“해경 이전은 행복도시법 위배” 홍일표 의원 절차상 문제 지적

시민대책위 내일 여야민정 정책간담 열고 대책 논의

해양경비안전본부부를 인천에 불집이 두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된다.

이번에는 국민안전처 이전 고시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홍일표(새누리·인천 남구갑) 의원이 해경본부 포함한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은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위배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행복도시법은 안전행정부부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기관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안행부는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할됐으니 국민안전처는 법률상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 인천준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 시민사회가 함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을 막기 위한 '여야 민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여야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시민대책위 단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안전처 이전고시의 위법 논란과 함께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해경본부 인천 준치를 바라는 인천시민의 성난 민심을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하고 여야 국회의원 공동 주관 공개토론회와 여야 정치권 및 시민대책위 합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천지역의 민심을 정부에게 강력히 보여줄 것"이라며 "해경본부 인천 준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여야 민정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포함시키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박수현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현경 기자 cho@kohoilbo.co.kr

인천시·지역 5개 대학 중 텐진서 유학설명회

인천시가 중국 유학생 유치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1일 중국 자매도시인 텐진(天津)에서 '인천시 유학생 유치 및 지원 대학교협의회'

주관으로 '합동유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겐트대, 인천대, 인하대, 정운대 인천캠퍼스, 한국 뉴욕주립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텐진시내 고등학교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대학은 각 학교의 특색, 장

점과 함께 장학금 등을 소개했고, 시는 인천의 관광자원 등을 적극 홍보했다.

시는 앞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 지원은 물론 유학생의 인천 기업 취업과 중국에 진출한 인천 기업의 인천 유학생 취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조현경 기자 cho@kohoilbo.co.kr



김상문
(주)아이케이 회장은?

- 경력
조선일보 인천지사장 등 역임
㈜인광기업 설립 및 대표이사 취임
㈜인광 회장 취임
보은장학회 이사장
- 저서
책속에 길이 있다 (1·2권 2007년, 3·4권 2012년)
저우언라이(2009년)
小平小道 (당사오핑 평전, 2014년)
- 상훈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장 수상
환경부 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녹색경영부문)
국가대표 우수환경업체 지정(환경부 장관)

김상문
(주)아이케이 회장

저우언라이
평전 외



‘권력 2인자 인민의 1인자로’ 중국개혁 이끌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BC 427~347)의 말처럼 사랑은 펜을 들게 한다. 머리와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이름을 수없이 되뇌며 하얀 종이 위에 빠르게 마음을 적고 또 적는다. 그렇게 사랑은 익어 가고 마음은 더욱 깊어진다.

이는 비단 남녀 간의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상은 반드시 있다.

특히 책을 통해 만난 사람은 여운이 길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정제된 글을 통해 만나니 아쉬움이 자연스럽게 깰 것이다. 가지지 않은 아쉬움은 궁금증을 남기고 궁금증은 그리움으로 증폭돼 결국 사랑을 낳는다. 그렇게 사랑은 익어 가고 비로소 시인이 된다.

여기 사랑에 빠져 책을 지은 사람이 있다. 바로 김상문(63) ㈜아이케이 회장이다.

흔히 외로운 자리라 일컫는 CEO로서 걸어가는 길목에서 만난 그가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사람은 중국의 혁명가이자 정치가인 저우언라이(周恩来·1898~1976)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지정을 기념해 기호일보사가 진행하는 ‘인천시민과 명사가 함께하는 애장 도서관’의 스물한 번째 명사로 그를 만나 봤다. 그가 가져온 애장 도서는 리펑(力平)의 「저우언라이 평전」과 그의 시선으로 저술한 「UN도 감동한 위대한 지도자 저우언라이」다.

저우언라이, 스스로 ‘1인자’에서 ‘2인자’로 김 회장은 저우언라이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1993년부터 사업차 중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중국 사업 파트너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질문을 했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저는 당연히 마오쩌둥이란 대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던진 질문이었죠. 워낙 중국 역사 속 인물 중 유명한 사람이나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오쩌둥이 아닌 저우언라이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의아했죠. 당시만 해도 저우언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국 혁명의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궁금증이 생기자마자 그는 곧바로 저우언라이 책을 집어 들었다.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마오쩌둥을 제치고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을 도와 중국 혁명을 성공시킨, 오늘의 중국을 이룩하는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날 마오쩌둥은 초대 지도자가 됐고 저우언라이는 세상을 떠난 1976년 1월 8일까지 총리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김 회장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조력자 없는 진정한 영웅은 찾을 수 없다”며 “저우언라이는 자신의 명예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용장 마오쩌둥을 탄생시켰고 대신 자신은 낮추는 위대한 2인자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 줬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의 저우언라이에 대한 칭찬이 이어진다. “마오쩌둥이 중국 지도자의 용장이라면 저우언라이는 덕장입니다. 후자는 저우언라이를 단순히 마오쩌둥에 이은 2인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신보다 서열상 아래에 있던 마오쩌둥을 1인자로 밀어 올리며 자신은 영원히 2인자이기를 자처한 사람으로, 오늘날 잊혀진 2인자가 아니라 1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영웅히 기억되며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적’과 ‘이념’, ‘사상’은 달라도 김 회장은 저우언라이에 대해 말하면서 ‘훌륭한 분’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했다. 그는 생각에만 그치지 않았다. 글을 쓰기로 작정했다. 한국인의 시각으로 좀 더 자유롭게 저우언라이를 소개하고 싶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고 싶었다.

“공산주의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마오쩌둥 도와 국가 미래 헌신 오늘날 중국인의 존경 한몸에 겸손과 소박·열정과 청렴 갖춰 기업 리더로서 롤모델 삼을만

는 적대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우언라이라는 인물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으니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겸손과 소박, 열정과 청렴에 온유까지 인간이 갖춰야 할 좋은 덕목을 두루 갖춘 동서고금을 통틀어 본받을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1913~1994) 미국 제37대 대통령과 쿠르트 발트하임(Kurt Josef Waldheim·1918~2007) 제4대 UN 사무총장도 이데올로기를 떠나 그를 존경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저우언라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저우언라이의 고상한 태도와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강렬한 매력에 빠져 나온다. 그는 매우 겸손하지만 침착하고 강인하며, 내가 지금까지 만나 본 각종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민첩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다.” 또 “마오쩌둥이 없었다면 중

국의 혁명은 결코 불분명 않았겠지만 저우언라이가 없었다면 그 불은 제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UN은 저우언라이가 사망하자 조기를 게양했다.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중국 공산주의자를 위해 UN이 조기를 내걸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발트하임 당시 UN 사무총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유엔에서 저우언라이를 추모하기 위한 조기 게양은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은 문명고국으로 금은재화가 부지기수이고 인민폐(중국 화폐)도 헤아릴 수 없게 많은

국의 혁명은 결코 불분명 않았겠지만 저우언라이가 없었다면 그 불은 제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UN은 저우언라이가 사망하자 조기를 게양했다.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중국 공산주의자를 위해 UN이 조기를 내걸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발트하임 당시 UN 사무총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유엔에서 저우언라이를 추모하기 위한 조기 게양은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은 문명고국으로 금은재화가 부지기수이고 인민폐(중국 화폐)도 헤아릴 수 없게 많

습니다. 그러나 저우언라이 총리는 생전에 한 푼의 저축도 없었습니다. 둘째, 중국의 10억 인구는 세계 인구의 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우언라이 총리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 원수든 앞으로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에만 부합돼도 그가 서거하는 날 우리 유엔에서는 그를 위해 반드시 조기를 게양할 것입니다.”

당시 광장에 모여 있던 각종 외교관들은 말문이 막혀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잠시 후 공산주의자이지만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저우언라이를 위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또 다른 저우언라이를 기대하며 “저우언라이는 ‘사상을 위한 정치가 아닌 인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일생을 보냈습니다. 한 기업의 리더로서 저 역시 직원들을 위한 경영을 펼치고 싶습니다. 제가 저우언라이를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 회장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친환경·자원재활용기업인 아이케이에 이르고 있다. 이곳은 건설 폐기물을 고품질 순환골재로 생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기업이다. 1991년 인광기업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다.

김 회장은 ‘114 정신’과 ‘학습 문화’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114 정신이란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말한다. 이는 20여 년 전 기업을 세우기 위해 1년여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총 114번이나 토지주를 찾아가 설득했던 도전정신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학습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의 경험 때문이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그는 배움에 대한 갈증이 항상 컸다.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책을 읽었다. 1년에 100~120권까지 닦치는 대로 읽었다. 이후 검정고시를 봤고 방송통신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박사과정에 들어간다.

집필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저우언라이(2009) 책에 이어 당사오핑 이야기를 담은 「소평소도(2014)」와 다양한 작품에서 글귀를 모아 펴낸 앤솔로지 「책 속에 길이 있다」 등이 있다. 향후 마오쩌둥 이야기와 중국 사람들이 애송하는 한시 100수를 정리해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저우언라이의 삶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향기로운 수 있는지, 또 죽은 다음에도 얼마나 고귀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리더들도 저우언라이가 가진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인품을 배워 앞으로 저우언라이와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꼭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저우언라이를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담=한동식 정치부장 dshan@khihoilbo.co.kr
정리=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사진=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3국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개최

경제공동체 구축 3대 협력방안 제시

3년 반 만에 재개... 박 대통령-日 아베-中 리커창 총리 참석 '경제단체 교류·투자 확대+통신판매 상호 발전' MOU 체결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중국 총리 등 한·일·중 3국 정상은 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나란히 참석했다. 3국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의 게이단련(経団連),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3국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러박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미래 성장산업 협력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이라는 3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서밋에선 ▶전경련, 게이단련,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3국 대표 경제단체 간 교류·투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전자상거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온라인쇼핑협회, 일본 통신판매협회, 중국 전자상무협회간 '한·일·중 통신판매 상호 발전' 업무협력약정서가 체결됐다. 청와대는 "2건의 양해각서 체결

한국 - 중국, 전략적 소통 강화하기로

박근혜 대통령,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 북핵·한반도 통일 문제 협력확대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북핵·한반도 통일문제 등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한중 양자회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핵 및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 대해서도 솔직

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문화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측은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구체화 및 세계 시장 공동진출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한 한중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 협력과 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한 FTA 활용도 제고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과 중국의 '제조 2025' 전략간 연계를 통한 창조혁신 분야 협력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帶一路) 연계를 위한 구체적 협력사업 발굴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및 금융협력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한중 FTA 발효되면 양국에 커다란 이익

국회 찾은 리커창 中 총리 정의화 의장과 면담 가져 비준 박차 韓 국회에 감사 남북회담 지지 입장 밝혀

방한 중인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일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조속한 발효를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FTA가 공식으로 발효되면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국회가 중·한 FTA 비준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어제 양국 정상회담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2015 중국 관광의 해' 폐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전쟁, 보수우파가 이겨야"

김무성, 총선 필승 결의 (전)대통령의 사진은 단 한 장 나오고, 우리 민족의 원수인 김일성 사진은 세 개씩이나 나오고 있는 이런 역사교과서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대회에서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세력,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세력, 대한민국의 통일을 어둠에 하는 세력과 싸우고 있다"며 "이 불온한 세력, 우리의 미래를 막아서는 이 세력을 응징해야 한다"며 "국정화 저지세력=불온세력"으로 규정했다. 박광섭 기자 ksp@khihoilbo.co.kr

이원욱 의원의, 주민설명회 참석

"'인덕원~수원선' 아닌 '인덕원~동탄선' 돼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화성)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3시, 화성시 반월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인덕원~수원선 전략환경영향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덕원~동탄선 명칭 변경 등을 주장하며 조속한 완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향후 진행상황 및 공사 세부 계획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사업 관계자와 채인석 화성시장, 이원욱 의원, 박종선 화성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동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논의의 이어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 때 사업은 GTX 사업과의 중복 노선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었지만 이 의원 등이 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LH 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서천~기산반월지구~능동지구~동탄중심~KTX 동탄역' 노선이 확정되는 등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인덕원~수원선 전략환경영향 주민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안산... 예산 지원 시급

부좌현 의원, 전향적 태도변화 정부에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안산 단원읍·사진)의원은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규정에 따른 피해지역인 안산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인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 후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15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문화관광활성화 사업, 연안정비사업,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등 3개 사업에 21억5천만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비가 배정된 문화관광사업의 경우 안산시가 요청한 사업비 3억 원 중 절반인 1억5천만 원만 배정하고 나머지 1억5천만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했다. 또 30억 원을 필요로 하는 연안 정비 사업은 10억 원,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운영비만을 배정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이번 예산안 편성은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정비 사업은 10억 원,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운영비만을 배정하는데 그쳤다.

일선 담당자·정책 책임자와 보육정책 개선책 논의

서청원 의원, 간담회 개최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을 특별초청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재무회계규칙 완화, 이전운영 대상 확대, 안전공제보험 확대, 기준보조율 차등화 등 보육정책 방향과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이번 정책간담회는 최근의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업 예고와 맞물려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견 청취를 비롯해 화성지역 일선 보육인들과 입법기관인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정부 정책책임자 등이 함께 한 보육정책 소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박장식 의원, 별내선·구리선 조속 진행 위한 협조 요청

새누리당 박장식(구리시 당협위원장·사진)의원은 지난 31일 2015-2016 여자프로농구 개막전이 열린 구리시 체육관을 찾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김 기획재정부 장관)와 면담을 갖고 별내선, 구리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동구릉 문화재구역 관광환경 개선, 체육 및 복지시설 확충 등 지역현안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고 기재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올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별내선 관련 예산중액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별내선의 조기 완공과 구리선(6호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hihoilbo.co.kr

심재철 의원, 안양 평촌초 급식실 신축예산 20억 확보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읍·사진) 국회의원은 1일, 안양 평촌초의 급식실 및 강당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급식실은 지난 2001년 교실 3칸을 개조해 설치된 시설로 물품검수와 조리가 한 장소에서 이뤄져 급식위생이 취약하고 난방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낡아 조리시 안전을 위협하는 등 급식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심 의원의 급식실 현대화



를 위한 예산 27억9천900만 원 중에서 20억 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함에 따라 평촌초 급식실 신축이 가능해졌고 오는 2017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원혜영 의원, 고려 왕궁터·개성 만월대 방문 목적 방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사진)의원은 외통위가 2일 고려 왕궁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개성 만월대를 방문하기 위해 방북한다고 1일 밝혔다. 원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의원이 함께 개성공단 이외 지역을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방북은 본 의원이 지난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최초 제안하고 나경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해 성사됐다"고 덧붙였다.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 22명을 포함한 수행원 등 방북단 58명은 2일 오전 9시30분에 출정해 고려성군관과 개성 만월대 현장, 개성 민



속여관, 왕건릉 등을 둘러보고 당일 오후 4시경 할 예정이다. 한편, 원혜영 의원은 남북 관계 논의의 진전을 위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DMZ 평화적 이용과 남북역사문화교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천=최두원 기자 cdh9799@khihoilbo.co.kr

Advertisement for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경기지역 분양 소식



‘핵심 입지+분양가’ 최적의 조건 교통·쇼핑 등 생활 인프라 풍부

■ 한강신도시 ‘이랜드타운힐스’

김포지역 내 핵심 입지부터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중소형 주택형에 이르기까지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파트가 갈수록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에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물 들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넘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부동산 투자자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오피스텔, 상가 등의 상품을 넘어 아파트 시장까지 투자자들이 시선이 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이들 부동산 투자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는 아파트를 최고의 투자 상품으로 꼽는다. 먼저 지역 내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입지에 위치해야 할 것. 다음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갖춰야 한다. 이런 가운데 김포 한강신도시의 핵심 입지로 꼽히는 운양역세권 일대에 시세보다 분양가를 대폭 낮춘 단지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주인공은 이랜드건설이 한강신도시 Ab-12블록에 공급하는 ‘이랜드타운힐스’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한강신도시는 최근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김포의 아파트값은 한 달 새

0.86% 오르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랜드건설은 이곳에 ‘이랜드타운힐스’를 거품을 뚫는 3.3㎡당 평균 900만 원대 분양가로 내놓을 계획이다(펜트하우스 제외). 최근 한강신도시 내 공급된 단지들이 1천만 원을 훌쩍 넘는 분양가에 공급된 것과 비교해 파격적인 금액으로, 한강신도시에서 900만 원대 아파트가 공급된 것은 약 3년 만의 일이다. 이 단지는 전 가구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타입으로만 제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관에서 주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펜트리 동선, 복층으로 구성된 펜트하우스 등의 혁신평면은 물론, 단지 내 4개의 테마가든, 어린 자녀를 위한 유티피안 키즈빌리지 등 다양한 설계 아이디어가 적용된다. ‘이랜드타운힐스’는 총 550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전용면적 기준 72, 84㎡의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다. 입지 또한 뛰어난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운양역(가칭) 역세권이며, 유치원, 초·중·고교, 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공식 홈페이지(www.elandtownhills.com)와 NC백화점 강서점에 샘플 하우스를 오픈했고, 김포시 장기동 2083-2(김포경찰서 옆)에서 모델 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문의: ☎1800-0910 김포=김동규 기자 kdk885@khihoilbo.co.kr



‘더블 역세권’ 강남까지 30분 OK 단지 내 테마공원 눈앞엔 광고산

■ 수지 ‘광고 상현 꿈에그린’

한화건설이 지난달 30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62 일대에 들어서는 ‘광고 상현 꿈에그린’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광고상현 꿈에그린’은 지하 3층·지상 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120㎡의 총 63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520가구 ▶84㎡B 84가구 ▶89㎡ 8가구(저층특화) ▶92㎡ 16가구(저층특화) ▶120㎡ 11가구(저층특화 복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 총 가구 수 대비 약 95%가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로 구성됐다. 내년 초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성북역과 상현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로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접근할 수 있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광고산도시 진입에 위치해 있어 광고 인프라를 그대로 누린다는 장점도 있다. 광고이마트, 롯데아웃렛 등 대형 쇼핑몰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원천호수·신대호수 등의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광고생활권이다. 또 인근 광고상호나들목을 통해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로 접근 역시 쉬워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교육환경도 훌륭하다. 혁신학교인 매봉초등학교가 배정됐으며, 인근에 상현중(혁신학교)·상현고·서원중·서원고 등이 위치하고 있다. 광고산 자락에 자리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광고산 조망권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단지 내에도 물빛정원, 풀향기정원, 카사파크, 피톤치드정원 등 다양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특히 국제 규격 축구장의 약 1.3배 규모에 달하는 어린이공원이 아파트 단지와 접한 위치에 함께 준공돼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가구 남향 위주(남동향, 남서향)로 배지됐으며, 넓은 동간격으로 외부 공간을 최대화했다. 주차장의 약 70%를 광폭주차장으로 설계했으며 미래형 전기가 충전소가 설치된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답게 커뮤니티시설도 충실하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실, 어린이를 위한 작은도서관, 남녀 독서실, 주민회의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무인택배 시스템으로 편리함을 더욱 높였다. 저층부(1~2층)에 위치한 35가구를 특화 구조로 선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1층에 위치한 전용 120㎡ 11가구는 복층 구조의 평면을 제공한다. 단지의 레벨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1층과 하부층으로 구성되며, 하부층을 다층도 스튜디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의: ☎1544-6500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유치원~고교 원스톱 교육환경 카페~커뮤니티 공간 맘스 특화

■ 용인 ‘양우내안팎 에듀파크’

올 한 해만 1만 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양우건설이 11월 용인 고림지구 7블록에 ‘양우내안팎 에듀파크’ 737가구를 공급한다. 고림지구는 이미 수년 청정 환경과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오랜 시책 개발사업으로 가시화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관심지역이다. 이에 더해 201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고등학교를 포함해 중학교, 2018년 9월 초등학교, 유치원이 개교 및 개원 예정이어서 체인구 최초로 지구 내에 안전하고 편리한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추게 된다. 현재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이미 우수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양우내안팎 에듀파크는 4천500여가구 규모 고림지구의 첫 단지로써 그 제품력과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 가구 인기있는 64㎡·74㎡·84㎡ 중소형, 지상 16층~28층 고층 8개 동으로 바로 옆 경안천·양지천 두 개의 하천과 인근에 석성산과 봉두산이 자리잡고 있다. 경관뿐만 아니라 경안천 수변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자연습지, 생태학습장, 석성산 등산로, 용인시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 등을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거는 콤팩트하지만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은 거대한 ‘스몰하우스 바라이프’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환경을 누리면서도 영동고속도로 용인나들목, 에버라인 고진역을 이용해 판교,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42번 국도로 기흥, 수원이나 양지방면, 45번 국도로 경기도 광주나 안성 방면까지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하다. 양우내안팎 에듀파크는 전체 대지면적의 35%가 넘는 조경공간으로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 같은 아파트로 지어진다. 이 중 테마놀이터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EQ를 자극하는 부엉이, 목장 등 독특한 테마와 별도의 파고라를 적용하고, 아이들의 하교를 기다리면서 또는 선긋광장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맘스 스테이션, 맘스 카페 등 엄마와 아이를 위한 맘스 특화가 특징적이다. 양우건설에서 새로이 ‘육체적·정신적 아름다움을 드려다, 들이다’의 의미로 이름드러낸다고 이름 지은 커뮤니티 센터는 선긋을 에워싸고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휴게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64㎡·74㎡·84㎡ 타입은 실수요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남향 위주 4베이 맞춤형 구조를 도입해 사계절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74㎡B는 남동·남서 2면 개방형으로 구성원 간의 프라이버시나 독립성을 줄 수 있는 참신한 구조에다 양방향 조망이 가능해 신세대들의 선호도가 높다. 문의: ☎1800-3533 용인=우승우 기자

수도권 주택 매매·전셋값 더 뛰었다

가을 성수기... 평균 0.42% ↑
유형·규모별 모두 상승폭 증가
도 전세난민 유입 0.63% 올라

지난달 가을 이사철을 맞아 경기인 지역 매매·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경기와 인천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44%, 0.24% 상승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이 평균 0.42%로 전월(0.39%)에 비해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은 0.24%로 전월(0.27%)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0.59%), 연립주택(0.18%), 단독주택(0.12%) 순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모별로는 60㎡ 이하(0.72%), 60㎡ 초과~85㎡ 이하(0.58%), 10

2㎡ 초과~135㎡ 이하(0.42%), 85㎡ 초과~102㎡ 이하(0.37%), 135㎡ 초과(0.23%) 순으로 나타나 모든 규모에서 올랐다. 전세도 지방보다 수도권의 상승폭이 컸다. 전국적으로 0.42% 오른 가운데 수도권이 0.61%로 전월(0.59%)에 비해 0.02%p 확대됐고 지방은 0.25%로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경기도의 전

셋값이 0.63%로 전월(0.57%)에 비해 많이 올랐다. 이는 전셋값이 비싼 서울을 떠나 경기지역으로 옮겨간 ‘전세난민’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월세가격은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월세 물건이 증가하면서 전세 월세 주택의 상승폭은 전월(0.07%)에 비해 줄어든 0.06%를 기록했다. 김재학 기자 kjh@khihoilbo.co.kr

도내 숨은 강소기업 판로 활짝

무협 경기본부, 빅바이어 초청
2751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구매력 있는 해외 바이어가 대거 참가한 ‘KITA 빅바이어 초청 경기 수출상담회’를 지난달 30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국 1위 유통기업인 뱁거드(Vanguard)그룹과 미국 아마존(Amazon) 우수 입점사인 모던(Modn e), 세계 3대 식품유통기업이자 태국 슈퍼마켓 1위 센터럴 푸드 리테일(Central Food Retail), 베트남 최대 슈퍼마켓 시티마트(Citi Mart) 등 글로벌 유티 바이어가 이번 수출상담회를 계기로 대거 경기도를 방문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마련한 ‘KITA 빅바이어 초청 경기 수출상담회’에서 기업들이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있다.

우수한 ‘made in Korea’ 제품 소싱을 위해 행사를 찾은 글로벌 바이어들은 이날 도내 수출제품의 수준에 우수한 평가를 아끼지 않았으며 시종일관 적극적인 태도로 상담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1위 화장품 전문 전자상거래 기업인 베이징 후이통 티안티안

이 비즈니스(Beijing HuiTong Tiantian E-Business) 쟁쟁이 부회장은 이날 상담 결과에 대해 “해외 시장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은 제품을 보유한 한국 강소업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도내 우수 기업들과의 만남에 만족을 나타냈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삼성 가전제품 구매 지금이 기회... 11월 한 달 패밀리 세일

삼성전자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운을 몰아 11월에도 특가 할인행사를 이어간다. 삼성전자는 이달 한 달간 ‘S 콜드러시 패밀리 세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TV,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PC 등 7

개 품목의 인기 신모델 등을 특가로 판매하는 행사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코리야 블랙 프라이데이에 낮아진 가격에 대대적인 가격 할인까지 더해 연중 최고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15년형 65인치 UHD TV 행사 모델은 기존 가격 대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모션싱크 정수기는 최대 46% 할인 판매한다. 프리미엄 냉장고 지펠 T9000 행사 모델은 기존 가격보다 최대 20%, 2015년형 지펠아삭 김치냉장고는 최대 1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S 콜드러시 패밀리 세일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쏙쏙 경제상식

경착륙과 연착륙

‘경착륙(Hard landing)’은 비행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착륙해 비행기 구조에 손상을 입힐 정도의 큰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반면 ‘연착륙(Soft landing)’은 고도를 천천히 낮추며 부드럽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경제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경착륙’과 ‘연착륙’은 사전적 의미와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수준을 의미하는 경기는 상승과 하락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이것을 ‘경기변동’ 또는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경기가 호황기를 지나 정점을 찍은 후 다시 수축되는 시기에 경제활동의 활기가 점차 약해지게 되는데, 소비·투자·고용·소득 등이 모두 둔화되기 시작하고 판매와 기업 이익도 줄어들게 된다. 이

때 경기 둔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생산·소비 등이 급감하고 실업이 크게 늘어나며 추가가 하락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 ‘경제 또는 경기’가 경착륙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경기의 급강하로 각 부문에 충격이 전달되는 상황을 항공기의 거친 착륙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반면 경제가 완만하게 수축되는 것을 경기의 연착륙이라고 한다. 많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한 재정 및 통화정책 등을 통해 수축기에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면서 앞으로는 종전의 7% 이상의 고도 성장이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위축돼 경착륙한다면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회복세도 주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중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최근 밝히기도 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Life Lotto <제674회>

9	10	14	25	27	31	+	11
당첨자		8명					
1등	6개 숫자 일치		1,770,565,500원				
2등	5개 숫자 일치 +보너스 숫자		49,182,375원				
3등	5개 숫자 일치		1,278,849원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잘 나가는 송도 6·8공구 '가구 수' 누더기 우려

송도 8공구 공동주택용지
예정가보다 629억 ↑ 매각

인천시·경제청 재정난 해결 위해 계획보다 수천가구 늘려
전문가 "송도 전체계획인구 틀어질 가능성 커... 조정 필요"

인천 송도 6·8공구의 '가구수'가 턱지턱지 변하고 있다. 인천시가 2012년 재정난 극복 차원에서 금융권에 팔아 치운 땅의 사업성을 높이고, 전 개발사업시행자와의 사업조정 협의를 통해 '가구수'를 마구 늘려 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가구수 조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07년 7월에 마련된 '2020 인천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송도 6·8공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당시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할 이곳의 수용 가구수는 1만9천499가구에 계획인구는 5만1천868명으로 짜였다. 가구당 인구수를 2.66명으로 환산해 가구수와

계획인구가 마련됐다. 하지만 2014년 7월 송도 6·8공구의 가구수와 계획인구 처음으로 무너진다. 중구 향운·연안아파트 이전(송도 9공구) 때문이다. 당초 송도 9공구에 계획된 부지가 송도 8공구와 9공구 사이 차단녹지(5만4천550㎡)로 이전해 주상복합용지로 되면서 400가구의 송도 6·8공구 내 가구수가 늘어났다. 올해는 더하다. 연초에 인천경제청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였던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간에 사업조정 협의를

통해 540가구 넘게 가구수가 늘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조정 협의 과정에서 SLC 측에 송도 6공구 내 공동주택용지(6개 필지·37만2천424㎡)의 개발권을 주면서 5천424가구의 기존 가구수를 필지별로 10%씩 상향해 줬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2012년 재정난 극복을 위해 교보 컨소시엄에 판 송도 8공구 A3블록(2천180가구의 가구수)을 530가구 더 늘려줬으며, 지난 9월 한화증권 컨소시엄에 넘긴 송도 8공구 A1블록(1859가구)도 1천141가구를 늘려 주고 용

적률도 기존 170% 이하에서 190% 이하에, 최고 높이도 110m 이하에서 130m 이하로 올려 줄 생각이다. 여기에 시와 인천경제청이 송도 6·8공구에 유치하려는 '엑스포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사업자 측이 가구수를 기존 7천415가구에서 7천725가구를 늘린 1만5천140가구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이를 수용할 경우 송도 6·8공구의 가구수는 '전정부지'로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송도 6·8

공구 내 필지별 개발사업 때마다 가구수를 '마구잡이'식으로 늘려 주다 보면 송도국제도시 전체 계획 인구가 늘어질 수 있다며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해 체계적인 가구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은 어쩔 수 없다"며 "향후 워터프런트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송도 6·8공구 개발계획을 새롭게 짤 계획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동 기자 airin@ko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은 송도 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1필지)가 매각 예정가격보다 600억 원 넘게 팔렸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30일 매각 예정인 송도 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1필지와 상업업무용지 2필지에 대한 개찰 결과 전체 매각 예정가격인 3천217억2천500여만 원보다 849억 원이 많은 4천66억6천200여만 원에 모두 매각됐다고 1일 밝혔다. 전체 낙찰률은 126.4%에 이른다. 관심을 끈 송도 8공구 A4블록 공동주택용지(10만5천21.9㎡)는 매각예정가 2천552억321만여원보다 629억 원이 많은 3천181억 원을 쓴 디에스네트웍스가 차지했다. 이 회사는 송도 5공구 Rc2블록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한 시공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7명이 응찰에 나선 송도동 8의 20번지 9천510.3㎡의 상업업무용지는 매각예정가(314억3천150여만 원)보다 높은 463억 원에 개인에게 돌아갔다. 인근 송도동 8의 23번지 9천954.7㎡의 상업업무용지는 422억6천277만여 원에 ㈜신영이 사들였다. 매각예정가는 350억9천여만 원이다. 인천동 기자 airin@kohoilbo.co.kr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30일 열린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인천클럽 제6대 회장 이·취임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 힘쓸 것"

전문직여성 연맹 인천클럽
이행숙 회장 취임식 가져

(사)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인천클럽은 지난달 30일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제6대 회장 이·취임식'과 '임원 인준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4년간 BPW 인천클럽을 이끌 신입 회장으로는 이행숙 한국

미래정책연구원장(정운대 겸임교수)이 추대됐다. 이 신입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문직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영희 직전 회장과 선배들의 뜻을 받들어 임기 동안 더욱 단결·화합된 BPW 인천클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장에서 여성의 균등한 힘 발휘 ▶차세대 여성 리더 양

성을 위한 멘토링 등을 통한 후배 역량 강화 ▶남성과의 동반자적 우호 관계 증진을 통한 조직 발전 도모 ▶BPW 네트워크의 단결 및 유대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상현 국회의원, 박영애 인천시의원, 박윤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안승목 인천경영포럼 회장, 이정희 자유총연맹 인천지부 회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등 200여 명의 내빈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중국 기자 kjk@kohoilbo.co.kr

인천 기업 이달 경기전망 '영하권'

제조업 BSI 60·비제조업 55
메르스 강타했던 7월 수준
내수부진·채산성 하락 영향

인천 기업들이 내달 11월 경기 전망이 암울하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 지속과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약화된 채산성 회복이 좀처럼 힘들 것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1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 11월 지역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는 60으로 예측돼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BSI 역시 55로 전망돼 중등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강타한 7월 수준(54)에 버금가는 수치를 나타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이하면 '악화'를 의미한다. 제조업체는 내수 회복이 더뎠다. 제품 재고는 늘고 판매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채산성이 하락해 생산 설비 투자나 고용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비제조업체 또한 11월 매출 BSI를 62로 응답해 올해 들어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에 응한 446개 지역 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내수 및 수출 진작책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김중국 기자 kjk@kohoilbo.co.kr

인천 신세계 백화점 '백 투 더 1980s'

신세계 인천점이 오는 8일까지 '복고풍'을 주제로 한 '1980s 고객 감사 대제전'을 연다. 행사에서는 1980년대부터 2015년 현재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은 '레전드(전설) 패션전'이 준비돼 있다. 레전드전은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상품들로 구성됐다. ▶에트로 솔더백(115만 원) ▶레이밴 선글라스(26만 원) ▶캘빈클라인 8일까지 복고풍 고객감사전 바이어 엮기 판매전도 진행

라인 진 청 퍼자켓(29만8천 원) ▶스와로브스키 스완 목걸이(14만5천 원) ▶MLB 모자(3만6천 원) ▶리복 펌프슈즈(21만9천 원) ▶리바이스 연청·진청 팬츠 (7만7천400~12만9천 원)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동 기자 ajk@kohoilbo.co.kr

2015 기호일보 자선 골프대회

선착순 120명

2015.11.16(월) 오후 12:14부터 한원컨트리클럽

경기방식 스트로크·신페리오

참가비 250,000원
(포함내역: 그린피, 카트사용료, 참가기념품, 추첨경품, 만찬)

계좌번호 농협 147-01-097474 (예금주: (주)기호일보)

시상내역 1. 일반 아마추어 : 스트로크 우승, 준우승, 3위(트로피 및 부상) 신페리오 우승, 준우승, 3위(트로피 및 부상)
2. 롱게스트, 니어리스트
3. 이벤트 시상

접수처 기호일보 www.kihoilbo.co.kr

문의 기호일보 사 업 국 ☎032)761-0007
기호일보 경기본사 ☎031)898-6767~8

경품 참가자 전원 제주도 2박 3일 여행상품권 증정
리조트회원권(5,000만원 상당/10년 보장) 1명
리조트회원권(2,200만원 상당/10년 보장) 16명
그외 상품 다수

팬사인회(건국대학교 골프부)

안신애

조은지

김현수

권지은

이은주

권지범

조정민

김보아

하민승

박지영

한송지

주최 기호일보 주관 사단법인 한국문화체육진흥원

동네방네

도공오늘 3D프린팅 공모작 전시

한국도공공사는 2일 서울세계도로 대회 열리는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내가 만드는 고속도로 3D프린팅' 시제품이 전시된다고 1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미래 제조업의 핵심인 3D프린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6월 18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내가 만드는 고속도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한 달간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수상작 3건은 시제품 제작 과정을 거친 후 관련 전문가들의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스마트폰 하이패스 커넥터'가 차지했다.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USB 크기의 휴대전화 연결용 커넥터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hihoilbo.co.kr

의왕시 블로그 최우수기관 선정

의왕시의 대표 블로그(http://blog.naver.com/yesuw21)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15년 제6회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기초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디자인 및 UI, 콘텐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부문에 대해 100인의 블로거 평가단이 참여한 1차 심사와 전문성과 영향력을 갖춘 10여 명의 전문가 그룹이 평가한 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hihoilbo.co.kr

화성 나래장학생 6일까지 접수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2015년도 '나래장학생'을 선발한다.

1일 재단에 따르면 선발 대상은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인, 재해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으로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24명, 대학생 6명으로 총 53명이다.

장학금은 각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장학생 신청은 오는 6일까지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포천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추진

포천시가 상수도 정책의 근간이 될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관망기술단 용역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관망기술단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20년께 완공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과 재건축에 따른 용수 공급 및 상수도 확대 방안이 반영될 예정이다.

과천=최승필 기자 spc@khihoilbo.co.kr

포천시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포천시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 인근 공터 노천 소각 및 드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활용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가정에서의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공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 드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소각, 노천 소각 등을 중점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hihoilbo.co.kr

평택시 美기업 3곳과 7억 달러 투자협약... 산업 대도시 우뚝

도 전폭적 지원 결심... 총 1만여 명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
오성산단 내 LNG초저온 물류단지·반도체 부품공장 설립

평택시가 미국의 3개 기업과 7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

1일 시에 따르면 공재광 시장은 뉴욕·펜실베이니아·모빌·샌프란시스코 등 5개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31일 귀국했다.

이번 방문에서 공 시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프리몬트에서 유진초저온(쥘), 에어프로덕츠, ㈜YKMC글로벌 3개 기업과 총 7억3천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진초저온(쥘)과 5억 달러, (쥘)에어프로덕츠와 2억1천400만 달러, (쥘)YKMC글로벌과 1천800만 달러의 규모다.

시는 이들 3개 기업의 고용효과가 직접적으로 1천여 명, 간접적으로는 1만여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공 시장은 "평택은 국제화만 평택항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이 위치한 첨단산업도시로써 주거, 교육, 문화, 관광 기능이 갖춰진 도시로 2020년에는 인구 9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도가 지난 한 해 동안 유치한 해외 투자유치금액 18억3천만 달러의 40%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준으로 그 배경에는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공 시장은 27일(현지시간)에는 1989년 자매결연한

모빌시 윌리엄 S. 스티븐 시장을 만나 경제, 문화, 스포츠, 청소년 분야에서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했으며, 28일에는 모빌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리셉션에서 평택시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소개하며 투자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유진초저온(쥘)은 오성산단단지 내 9만2천151㎡ 규모로 향후 5년간 5억 달러를 투자해 LNG초저온 물류단지를 개발하게 되고, (쥘)에어프로덕츠는 장단산업단지 내 3만4천167㎡ 규모로 2억1천400만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초고순도 가스 인프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쥘)YKMC글로벌은 오성산단단지 내 2만4천㎡ 규모로 1천800만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부품제조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와 공재광 평택시장(오른쪽)이 미국 에어프로덕츠사와 투자유치 MOU를 맺고 협약서를 들어보고 있다.

“보수혁신으로 대한민국 승리 역사 잇자”

박상길 前도지사 비서실장 파주시갑 총선출마 앞두고
여권 정치연대 발기인 참여

내년 총선 때 파주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상길(사신 왼쪽에서 3번째)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공식 출범한 정치연대플러스(이하 정치연대)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정치연대에는 박상길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주로 새누리당과 직간접적으로 연인을 맺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보수 혁신을 이루기 위해 헌신 계파를 초월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설 때가 됐다는 데 뜻을 모으고 6개월 전부터 창립 준비와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정치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굴욕과 실패의 역사로 훼손되거나 폄하될 수 없는, 성공과 성취의 시대이며 승리의 역



정치연대 플러스 창립대회 일시 : 2015년 10월 30(금) 오전 10:00 / 장소 : 국회

사”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이어가기 위해선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이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치연대는 “구태와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혁신과 통합의 플러스 정치를 원하는 세력과 정치연대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향후 행동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박 전 실장은 향후 정치연대 산하 2016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요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총선 이후에는 전국 조직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파주=김준구 기자 kimjg@khihoilbo.co.kr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진실, 권력이 막아”

참사 기억 사진 전시회서 유가족과 만나 간담 나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아직도 누군가는 진실에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자들이 바로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나 ‘아이들의 방’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시청사 2층 시민갤러리 ‘공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영만(6번)·예진(3번)·재욱(8번)·성호(5번)학생의 여

니와 시민 3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시장은 “엄청난 권력이 진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며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국민들의 힘뿐”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시청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조형물을 보면서 그동안 감춰둔 눈물을 흘렸다.

박유신(예진양 엄마)씨는 “배를 보면서 바로 우리 아이가 있던 4층 선미 쪽으로 가게 되더라”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진의 마지막 순간만큼 힘들겠느냐고 다짐을 한 번 더했다”고 말했다.

황영미(재욱 군 엄마)씨는 “지금까지 아이가 타고 갔던 그 배를 들어가 볼 수 없었다”며 “성남시

청에서 오늘 그 배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게 해 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의 침몰이자 대한민국의 양심의 침몰”이라며 “특별법 시행을 제정한 지 1년이 됐는데 특조위의 활동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성남시청 2층 갤러리 공감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4·16 세월호 참사 기억 프로젝트인 ‘아이들의 방’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전시회는 11월 1일까지 진행됐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khihoilbo.co.kr

고양행 행신3파출소 개소... 치안서비스 질적 향상 첫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주민들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년 만에 새동계 단장한 ‘행신3파출소’가 개소했다.

1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지방경찰청 박상웅 2차장과 정수상 서장을 비롯해 김태원 국회의원과 및 협력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신3파출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신3파출소는 2002년 12월 신설됐으나 2003년 8월 지구대로 통합돼 치안센터로 사용되면서 그 이름을 잃었다. 하지만 최근 원흥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지역 내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 1월 경찰청이 또다시 파출소 신설에 나섰고, 9월 리모델링 증축공사를 시작한 12년 만에 다시금 파출소로 행신동 주민들 곁으로 돌아왔다.

행신3파출소 개소식에서 박상웅 2차장은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성껏 섬기는 경찰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부천 북부 송내역 앞 새 이름 ‘무지개광장’

시민 공모작 132건 중 선정 분수·연결 의미와도 부합
내달 환승센터 준공 예정

부천시는 송내역 북부광장이 새롭게 탄생되면서 ‘송내 무지개광장’으로 명명돼 운영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지개란 이름은 연결, 소통, 다양성의 공존, 화합 등의 의미로 함축돼 송내역 광장이 ‘물 광장’으로 거듭난다.

시 관계자는 “물안개 분수(미스트)가 뿜어지면서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빛을 받으면 무지개 형상이 가능하다. 송내역 환승센터가 연결을 통한 가교 기능을 수행하고 광장의 기능적 의미와도 부합하는 이름이 바로 ‘무지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능해 나갈 환승센터의 기능, 시설, 주변 환경적인 특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이름 발굴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진행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송내역 광장 명칭을 공모한 결과 SNS를 통해 96건, 시민·직원 제안 9건, 북사골·블로그 기자 제안 11건, 시정 메모·댓글 16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13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송내역 환승센터는 역사 2층은 전철과 버스, 1층은 택시와 승용차만 다닐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환승 거리가 평균 2분 정도 단축되며 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가족공예 교육에 참여한 여성들이 반달파우치 만들기 실습에 열중하고 있다.

가족 재단·염색 내 손으로 농촌여성 새 취미로 ‘활력’

한국생활개선 포천연합 1인 1특기 갖기사업 일환 6주간 제품 만들기 교육

농촌사회의 새로운 여성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생활개선 포천시연합회(회장 송태숙)가 가족공예 분과교육을 열어 화제다.

1일 한국생활개선 포천시연합회에 따르면 가족제품을 갖고 싶었지만 가격이 비싸고 맘에 드는 물건을 찾기 어려웠거나 가족공예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회원들을 모아 가족공예 분과교육생을 선발했다.

‘회원 1인 1특기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가족공예 분과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총 6주간 가족의 이론과 가족제품 5종 만들기 교육이 진행된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수업에서는 반달파우치 만들기 실습이 이뤄졌는데 가족을 재단해 지퍼를 달고 파우치에 각자의 색을 표현함으로써 자기만의 창작품을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이 끝난 후 파우치를 품안에 꼭 안은 한 수강생은 “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이

렇게 다채롭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하다”며 “무엇보다 내 손으로 하나뿐인 나만의 가족파우치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잠재적 소질 개발을 위한 교육 확대에 힘쓸 것이며, 이러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한국생활개선 포천시연합회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hihoilbo.co.kr

의정부시, 미군 공여지 발전계획 4차 변경안 공청회

RC캠프 안보관광단지로 주변 개발 등 46건 재조정

<레드 클라우드>

의정부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지난 달 29일 열린 이번 공청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남양주, 동두천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석해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의견을 제출했다.

발전 종합계획은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들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주변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자 수립한 계획으로 지난 2009년 최초 확정된 이래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변경이 이뤄져 왔다.

이번에 변경되는 발전 종합계획은 지난 1월 이후 기준으로 지자체별 변화된 여건을 고려했으며 신규사업 14건을 포함해 총 46건을 조정·변경하게 된다.

시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교육연구시설로 개발하기로 돼 있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캠프 라파다리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등이 반영된다.



의정부시가 마련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신규 사업으로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사업으로 시 소재 복합문화 창조도시, 녹양 우정마을 복합단지,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등이 반영된다.

김근정 공공여지개발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발전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돼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 되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민간 부문의 활발한 사업 참여로 정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동네방네

연천군 비축미 6일부터 매일

연천군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왕징면사무소에서부터 10개 읍·면에서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매입에 들어간다.

1일 군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곡 물량 3천488t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마무리하고 6일부터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 일정을 보면 왕징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읍·면별로 매입한 후 24일 신답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hihoilbo.co.kr

양주 개별공시지가 인터넷알람

양주시는 지난달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8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의결하고 30일 공시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 공시된 대상 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용이 발생한 3천643필지로 전년도 2천228필지보다 1천 415필지가 증가했다. 시는 과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했으나 인터넷 알람 보편화, 예산 삭감 등으로 우편 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알람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알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 양식에 적정한 의견이나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hun@khihoilbo.co.kr

여권·국제운전면허 동시발급

양평군은 도로교통공단 의정부면허시험장과 업무 협조를 통해 '여권·국제 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원스톱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국제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운전 시에는 여권과 국내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시 준비서류는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천500원, 소요기간은 7일 정도이며 여권과 함께 교부받거나 우편수령도 가능하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구리시, 한강수계 3단계 정비 끝

7개 관거 신설·배수설비 공사 하수 처리 등 주거환경 개선

구리시가 지난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총 3단계에 걸쳐 실시한 한강수계 정비사업 최종 3단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시는 갈매 1처리 분구 등 7개 처리 분구 총연장 31.2km에 대한 관거 신설 및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해 한강수계 지역의 수질 개선 및 하수처리율이 크게 높아졌다. 당초 시의 하수관거 내 오수와 우수의 분리율은 10% 정도였으나 이번 3차 정비사업을 통해 83.8%까지 향상시켜 유입수와 침입수 저감에 따른 하수처리량 유입수질(BOD 90.8mg/L→161.8mg/L)이 상승돼 하수처리 효율성과 왕숙천 수질이 개선(BOD 12.8mg/L→5.1mg/L)되면서 고질적인 악취민원이 상당 부분 해결됐다. 그뿐만 아니라 한강수계 1·2

단계 사업구역의 유량계 관리 방식과 시스템 일원화로 전문 위탁 기관인 환경공단에 유량계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해 데이터 관리와 계측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과 연계해 2016년 시행 예정으로 전통시장 근처와 수택동 일대 하수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냄새 유발인자인 황화수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스프레이 방식의 악취저감장치를 시범설치할 계획이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hihoilbo.co.kr

일산농협 "로컬푸드 매장서 김장준비를"

고양지역 대표 단위농협인 일산농협이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소속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김장시장을 개장한다. <사진> 1일 일산농협에 따르면 김장시장이 열리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4년 처음 문을 연 1호점 풍산점과 지난 6월 개장한 본점 등 2 곳이다. 특히 이번 김장시장은 기

존 방식에서 벗어나 로컬푸드 직매장에 당일 출하된 배추와 무, 파 등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인 첫갈과 천일염, 고춧가루 등 다양한 김장 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또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절여서 판매하는 절임배추도 예약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김장시장은 12일부터 14



일까지 본점(☎031-975-8322)과 19일부터 21일까지 풍산점(☎031-906-3666)에서 각각 3일씩 열린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파주 우정신도시 야당역 운행 대합실 등 역사 편의시설 눈길

파주시에 위치한 야당역에 첫 전철이 정착하면서 지난달 31일 운행을 개시했다. 야당역은 경의·중앙선 내 운정

역과 탄현역 사이에 새로 생긴 역으로, 건축총면적 1천528㎡에 주차장과 자전거 거처대, 보도교 등 이용자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특히 광역전철 역사 최초로 승강장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합실과 스크린도어, 주변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펜스가 설

치돼 타 역사와 차별성을 갖췄다. 역사 인근 운정신도시의 한 입주주민은 "아파트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사가 생겨 좋았고, 대합실에서 따뜻하게 전철을 기다린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파주=김준구 기자 kimjk@khihoilbo.co.kr



식물 키우고... 당구 치고 경로당 테마로 '세대공감'

남양주 지역사회 후원 속 평생교육의 장으로 변신

남양주시가 대표적인 노년여가 공간인 경로당을 테마가 있는 브랜드 경로당으로 육성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진접읍 신안인스빌 아파트 경로당을 '다육이 키우는 경로당'으로 조성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키우기 쉬운 다육식물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과 손자·손녀 등이 함께 돌보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특히 꽃피는 나무화원, 이룬나무 공방 등 지역사회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후원으로 조성돼 감동을 주고 있다. 시 예산

이 50만 원 안팎의 현관 제작에만 사용된 점을 감안, 노인복지가 지역사회와 성공적으로 융합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경로당을 무료하고 단순한 시간 보내기 장소에서 테마와 브랜드 가치가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혁신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운영,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시는 오는 17일 화도를 보미정광 아파트 경로당을 '당구 치는 경로당'으로 개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테마 경로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양주=조병국 기자 chj@khihoilbo.co.kr

이천쌀문화축제 경제효과 '특독'

올해 43만4000명 방문 매출 14억, 작년비 1억↑

올해도 이천쌀문화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일 이천시에 따르면 제17회 이천쌀문화축제가 개최된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43만4천여 명의 내·외국인이 축제장을 다녀갔고, 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1억여 원(6%)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흥겨운 만남~행복한 나눔'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대동놀이와 임금님진상행렬, 무지개가래떡 만들기, 가마솥밥이천명 이천원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대인 많은 농가의 입점으로 더욱 다양한 이천의 농산물과 밥맛 좋기로 소문난 임금님표 이천쌀을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한 결실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햅쌀장터 및 농산물 판매장 등의 전체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1억여 원 증가한 14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 이천쌀문화축제장을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이천쌀을 더 특성화시켜 농업인과 특산물 소득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hihoilbo.co.kr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1341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운영사업계획(변경) 공람·공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도시철도 건설·운영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02일
인천광역시

1. 사업계획 개요
가.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변경없음)

노선명	기·종점	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비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인천시 서구 오류동 ~ 인천시 남동구 운현동	서 구 : 검암역, 가정오거리 남 구 : 주안역, 석바위사거리 남동구 : 시청역, 장수대공원	2호선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철도 건설사업
(2) 명 칭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라.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1) 착 수 : 2009년 06월 15일
(2) 준 공 : 2016년 12월 31일
마. 관련도서 :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2. 사업계획 변경내용
(1) 환승주차장 및 주차기지 변경사항 반영
(2)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용지 면적 변경사항 반영
(3)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범위 변경사항 반영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부(☎032-451-274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032-453-2883) 인천광역시 남 구 청 교통행정과(☎032-880-4743) 인천광역시 서 구 청 기획예산실(☎032-560-5903)

5. 기타사항 : 도시철도2호선 건설·운영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5-1183호

『용현9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해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에 따른 공고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15-47호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232호로 구역해제 된 『용현9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로부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사 업 명 : 용현9 도시환경정비사업
2. 추진위해산 : 2015년 4월 20일
3. 구역해제 : 2015년 9월 9일
4. 신청일(일) :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 윤미정 (2015년 10월 19일)
5. 사용금액 : 728,750,288원
6. 이해관계인 : 정비업체 등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3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2조의3

왕조바다마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왕조바다마을은 항상 위생적이고 신선한 활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계절의 맛! 계절음식 전문점
활어·선어·산낙지 등 바다의 모든 것

인하대병원 | 동인천 | 현대소 | 한천

공갈비 | 진성토건 | 용현5동사무소 | N나비모텔 | 왕조바다마을

왕조바다마을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 628-19 TEL.(032)884-4415

월요프리즘

이국성



변호사/기호일보 독자위원
회위원장

판검사 평가제도

1986년으로 기억된다. 너무 오래된 추억이라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는 본인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났다. 당시 26살의 나이로 판사 실습을 하기 위해 모 지방법원으로 배속돼 어느 부장판사실에서 판사 실무 수습을 하게 됐다. 늘 법원이라는 직장 안에서 움직이게 되니 만나는 사람들도 매우 한정되고 늘 결론문을 작성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읽어 가면서 메모하는 것이 거의 주된 하루 일과였다. 판사시보라는 혹은 연수생 시보라는 명칭이 따라 붙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리를 뒀고 나이 많은 분들은 영감님이라는 호칭까지 붙여주었다. 처음에는 이 호칭이 매우 거슬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들어 줄 만하다고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됐다. 같은 구내에서 늘 만나던 선배 판사들이 신사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반인들을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의 느낌이 무언지 모르게 이상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어투가 아니라 대화 문장의 끝부분만을 높여서

마지 못해 상대방을 인정해 주려는 느낌이었다. 판사 실무 수습을 마치고 지방의 모 검찰청의 마약부에 배속돼 주임검사 실무 수습을 하게 됐다. 느낌은 정말 대단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엄격한 규율을 받아 본 것이 진짜로 처음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찰의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는 철제 의자를 검사나 수사관 앞에 놓고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처음에는 언어를 높여 사용하면서 조사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반말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에는 그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모두가 문제의식 없이 넘어간 것으로 기억된다. 10개월의 판사, 검사 실무 수습을 마치고 다시 사법연수원으로 복귀했다. 조용한 사법연수원 기숙사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 무게감은 개인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법조 문화가 아니라는 것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후 정권이 바뀌면서 법조 환경도 속박될 정도로 빠르게 변했다.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

만 법정 바로 앞에 법정 안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의 언행,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는 법원의 평가질의서까지 등장했다.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라는 직책은 헌법기관으로서 최고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재판을 받고 나오자마자 평가를 해달라는 질의서를 법정 밖에 설치한 법원의 행위는 너무나 변한 법원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다. 흔히 권력은 있으나 존경을 받지 못하면 폭력이라고 한다.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검사에 대한 평가 제도를 수행한다고 해서 그 정당성 혹은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현재 검찰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으로부터의 평가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수사의 기밀성이라는 이유가 평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최근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방산업체의 무기 관련 온갖 부정과 비리는 업무의 기밀성, 중대성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임은 상식적인 진단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국민에 의한 평가를 받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사문

화와 관행을 국민편의 증진 쪽으로 개선해 왔다면 굳이 변호사 단계에서 검사를 평가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일로 많은 경찰서와 검찰을 방문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배려 깊으며 언어 사용도 공손해 그 인간적인 따뜻함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수사문화가 변화된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사관들은 아직도 사회에서 상대방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당신이라는 호칭을 초면부터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심지어 똑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각오하라는 식의 위협도 들리곤 한다. 차체에 검사의 평가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볼 시기라고 생각한다. 검사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검사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수준이라면 대환영이다. 언제,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고 고생하는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 진정한 평가제도이다. 더불어 진정한 평가는 스스로에 의한 자기 성찰과 양심에 기한 변화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해안

사람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소중하면서도 힘든 게 사람이다. 가족 그리고 친구, 직장 동료와 애인, 아내 그리고 아이. 아직 결혼이란 것을 하지 않은 나로서는 아내와 아이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얼마 전 직장 동료이자 친구를 잃은 사건이었다. 달갑지 않은 이야기지만 한때는 누구보다 나와 죽이 잘 맞는 사람이라 믿었고, 그렇게 관계를 지켜왔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사고가 발생했

고, 난 속으로 아니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이별 통보를 했다. 그 이별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가 문제가 아닌 순간 이별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한 사람을 보냈다. 살아오며 내게 소중한 사람을 떠나 보낼 때가 있다. 날 싫어하거나 내가 싫은 사람을 떠나 보낼 때의 아픔이 거의 없지만 아끼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의 슬픔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별의 아픔은 그렇다 치고 내가 아끼던 지인과의 이별은 언제나 쓸쓸할 뿐이다.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이런 미련을 갖는다.

‘인연이 되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 하지만 또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도 해본다. ‘인연이 아니니까 이별하는 거다.’ 앞으로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연을 떠나 보낼지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 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을 쉽게 놓지않게 노력이란 걸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최대한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아무나 만나지 말지이다. 아무나 만나서 소중한 청춘을 허비하지 말지이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 아무나를 선택하는 일도 내 몫이리라. 일단 오늘은 그 누구도 만나지 말아 보자. <이재훈 기자>

가평군과 미 제40사단, 누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나?

자치플라자

김성기



가평군수

세계 3대 재즈축제의 하나인 가평군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이 끝난 후 10월 14일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나는 텍사스 휴스턴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휴스턴 방문은 65년 전 한국전쟁 기간에 가이사 중·고등학교를 건설해줬던 미 보병 40사단 재향군인회(회장 브렌트 제트)의 초청 때문이었다. 한국전쟁 때 연천, 철원, 김화지구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미 보병 40사단은 가평에서는 예비대로 주둔하며 대민업무에 차중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1952년 포성이 울리고 연기가 자욱한 전장터에서 천막을 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150여 명의 가평 어린학생들을 목격한 사단장은 부대에 들어가 이 광경을 전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1만5천 명의 장병들이 2달리씩 모금을 학교를 짓고 그 이름은 40사단 한국전 참전 최초의 전사자인 카이저 하사의 이름을 따 가평고로 바꿨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평고등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

지 텍사스 휴스턴 나사(NASA)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미 제40사단 한국전 참전 재향군인회 리 유니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다. 그 행사에 나는 가평군수로서 초청받아 참석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동료에 대한 추모와 진혼곡 그리고 NASA(미 항공우주국)방문, 미공군의 전투기 및 전폭기 시범비행 등 참전용사들과 속삭임 같이하며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리 유니는 행사 마지막 날 미 40사단 재향군인회는 가평군 대표단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나는 40사단으로부터 가장 혜택을 입은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들이 건설해준 가평고등학교에서 수업했기에 40사단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크게 빛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차례가 돼 나는 단상으로 나가 300여 명의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앞에 6만3천여 가평군민을 대표해서 40사단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지금 까지 가평에 베풀어준 헌신과 희생에 대해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그 다음 한국전 참전용사를 대표해서 단상에 오른 스콧 존슨 전 40사단장은 모든 가평군민을 포함한 한국민에게 진정에서 우리나라를 드린다고 감사사를 했다. 그러면서 나사(NASA) 미 항공우주국에서 찍은 위성에서 보낸 한반도 위성 사진을 보면 서울의 밤은 밝은데 평양의 밤거리는 칠흑같이 어둡다며 그것이 단적으로 한국전

쟁이 끝나고 65년이 지난 지금 경제발전의 격차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7위의 수출국으로 성장했는데 북한은 아직도 최빈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한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며 주머니에서 갤럭시를 꺼내 보여줬다. 그는 행사가 끝나고 가평에 주둔하며 가평고등학교를 건설했던 참전용사들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노구의 참전용사들은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자신들을 반겨줘 고맙다고 연신 우리 말로 ‘감사합니다’를 반복했다. 한국전쟁 당시 19세, 20세의 철부지 청년들이었던 그들은 이제 거든에도 어려움을 겪는 평균 85세 벽안의 노병들로 변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으나 고국에 돌아와서는 크게 격려 받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잊혀 가던 중 늦었지만 이제 와서 한국 국민들이 진정에서 우리나라를 감사사를 표하자 그것에 고마워했다. 이런 것보다 그들을 더욱 더 감동시킨 것은 그들이 싸우고 도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눈부시게 발전해 세계 상위권의 경제강국이 된 것에 대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감사하는 것이었다. 수정같이 투명한 벽안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나는 끊임이 생각에 잠겼다. 누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기호일보 kioilbo.co.kr

등록번호 인친가100001
1988년 7월 20일 창간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전기식 / 경기본사 편집국장 정준영			
인천본사 032-761-0001 © 032-761-0015 경기본사 031-898-6767-8 © 031-898-6769 경기북부본사 031-872-2990 © 031-872-2991	인천시 남구 인종로5 정산빌딩 9층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29 연합뉴스 빌딩 4층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관건축 3층		
구독신청 032-761-0007 판매국 032-761-0013 광고문의 032-761-0002	편집국 팩스 032-761-0011 정정부 032-761-0003 경제부 032-761-0004 사회부 032-761-0005 문화·체육부 032-761-0005	편집부 032-761-0006 디지털뉴스부 032-761-0009 사입국 032-761-0008 출판국 032-761-0008 총무국 032-761-0007	
지국 전화 번호	영종 032-743-2990 중구 032-772-4909 강화 010-3330-5204 가평 031-582-0478 고양 031-962-5360 안양·관천 010-6354-3259 광명 02-2688-3239 광주 010-5204-3470 구리 031-511-4434 군포·의왕 031-394-0446 김포 031-997-3030 남양주 031-511-4434	동두천 031-865-2557 부천 010-5356-8211 서울 02-313-5962 성남 031-757-8948 수원 011-242-6004 시흥 010-3218-8724 안산 010-5313-5329 안성 031-675-2615 양주 031-845-4200 양평 010-8916-2106 여주 031-885-3627 연천 031-834-1307	오산 010-9274-3486 신갈 031-285-2283 처인 031-333-1112 의정부 031-845-4200 이천 031-634-3312 파주 031-941-4513 평택 031-653-3132 포천 031-535-5806 하남 031-793-4142 화성 010-9274-3466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호지방(畿湖地方)이란?

한반도의 중심지역을 일컫는 지방명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영서지역, 충청남·북의 충청도 북부지역, 멸망산맥 이남의 황해도 남부지역이 포함된다. 기호지방은 흔히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해 불렀는데, 경기도의 '기(畿)'와 충청도에 있는 의림주의 '호(湖)'자에서 비롯됐다. 삼한 시대에는 마한,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산주(漢山州·한주(漢州)·한양(漢陽)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양주(楊州)라 하다가 성종의 10도 편성으로 경기 일대를 관내도(關內道), 공주(公州) 중심의 충청남·북도 일대를 하남도(河南道)라 했으며, 1058년(문종 12)에 '경기'라는 행정구역이 창설됐다. 특히 조선시대의 도읍지가 한양으로 옮겨지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중심을 이루는 수도권으로 성장해 왔다.

인생 2막!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isenergy world

(유)와이즈에너지월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확실하고 안정된 소득! 노후를 준비하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근거한 태양광 RPS발전사업은 건물 위, 대지에 자신에 자금규모에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후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 발전소에 판매하는 안정된 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하면 전기요금 부담 해결됩니다.
• 누진세로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주택 • 공동주택의 공동전기요금 절약 • 신축주택의 태양광설치로 가치상승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공사 · 수요자원등록 전문 태양광발전사업 문의 ☎1566-1336

원현린 칼럼



주필

떠나고(離) 헤어진다(散)는 ‘이산(離散)’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는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편에 보인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저들 적국에서는 백성의 시간을 빼앗아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못 짓게 하여 그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父母凍餓), 형제처자는 뿔뿔이 헤어졌습니다(兄弟妻子離散)”라는 말이 그것이다.

이렇듯 ‘이산’은 사전적 풀이인 ‘가족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헤어져 흩어짐’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전쟁에서 비롯된 헤어짐의 상흔(傷痕)이다. 전쟁으로 인한 이별은 애간장이 끊기고 타는 아픔을 남긴다. ‘단장(斷腸)의 아픔’이라는 말이 있다. 너무나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이 ‘단장’에 관한 슬픈 유래가 있

다. 중국 동진(東晉)시대 대장군 환온(桓溫)이 촉(蜀) 정벌에 나섰다. 배를 이용해 군사를 나눠 싣고 양자강 중류의 절벽이 많은 협곡 삼협(三峽)을 통과할 때 병사 하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서 배에 싣었다. 새끼 원숭이가 잡혀가자 어미 원숭이가 뒤따라왔으나 배에 오르지 못하고 강가에서 슬피 울부짖었다. 애절한 어미 원숭이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배가 강곡이 좁아지는 곳에 이르러 강기슭에 배를 대자 어미 원숭이는 바로 배에 뛰어올랐다. 그러나 어미원숭이는 피를 토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다. 병사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 보니 너무나 애절한 나머지 창자가 토막토막 모두 끊어져 있었다. 이후 ‘단장’은 생이별의 아픔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더 이상 이산가족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는 이산의 아픔을 언제까지 드라마 아닌 드라마로 보아야 하는가. 며칠 전, 온 국민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고추밭이 ‘꽃산’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졌던 딸에게 65년 만에 약

이산(離散)

속을 지킨 한 노구의 아버지, 남북 어부가 43년 만에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지만 불과 12시간 상봉 후 헤어지는 장면에서 차마 늙으신 어머니를 바라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삼키는 64세 초로의 아들 모습 등등. 국민들은 아무리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가 연출돼도 이제는 흘릴 눈물마저 말라 버린 지 오래다.

지난달 27일자를 끝으로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 언론에서는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다루는 기사는 사라졌다. 또 다시 언제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거론돼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른다.

세월부대인(歲月不待人),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했다. 이산가족들의 나이가 자꾸만 고령화되고 있다. 일에는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다소 늦춰도 괜찮은 것이 있다. 때를 놓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짧은 만남, 긴 이별’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기억 없는 만남과 이별만이 반복 상영되는 이상한 한반도 드라마다. 만나니 반갑다 했다. 하지

만 곧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슬프다 했다. 혈육이 잡은 손을 버스 차창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저 바라만 봐야 했던 국민들이다.

이제 헤어지면 또 언제 다시 만날까 하는 기억 없는 이별에 눈물을 흘리곤 하는 우리 이산가족들이다.

상봉 가족들에게 한바탕 꿈이었을 것이다. 만남 후 또 다시 생이별의 아픔을 되새겨야 하니 만남 또한 고통이다.

지난달 22일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한 1차 상봉단이 마지막 상봉 일정을 끝낸데 이어 26일 2차 상봉단도 상봉 일정을 모두 끝냈다. 1주일이 지났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론에서도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산의 아픔도 잊혀져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점이다. 아마도 우리 남북 이산가족을 제외하고는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지 않고 헤어지는 가족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게다. 지난 10월 3일이 통돛(統纜) 25주년이었다. 독일의 통일도 보지 못했는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目睹)하지 못했는가. 참으로 못한 민족이다.

열린광장

양희숙



K-water 주부서포터스

매년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방 상수도물 위수탁 관리하고 있는 22개 지역에 주부서포터스를 임명하는데, 나는 그 중 파주시도관리단의 서포터스로 활동하고 있다. 두 아이도 이제 제법 컸고, 여유 시간에 사회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것도 주부서포터스를 하게 된 이유였다. 마침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SWC사업의 시범 단지로 지정되면서 책임감을 갖고 시작하게 된 서포터스 활동!

주부서포터스로 임명되고 물의 생산 과정, 수돗물을 측정하는 기기 다루는 법과 고객 응대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됐다. 주부서포터스의 활동범위는 이웃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이와 더불어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마시는 학교 내 수돗물 수질까지도 꼼꼼히 체크했다.

중요한 pH, 잔류염소 농도 등을

수돗물 인식 바꾸게 해준 주부서포터스 활동

측정해주고, 수돗물은 가장 안전하고 건강에 이로운 물이니 직접 음용하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서포터스의 중요 업무이다. 실제로 나의 주변인들은 정수기 렌탈을 중지하는 예가 많아졌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주부서포터스를 하면서 느낀 우리 동네 주부들의 생각이다. 극히 일부이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싶을 정도다. 조금이라도 몸에 더 좋은 물을 먹고 싶다는 바람이야같은 주부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불신이 극에 달해 밥 짓는 물도 생수를 사서 짓고 다른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화장실의 물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라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백약이 무효하다는 생각과 하물머 애원에게도 생수를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 글들을 볼 때면 정말 나로서도 난감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원인은 침소봉대한 언론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낡은 수도관의 충격적인 모습만을 방영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대폭 깎아내리고 국민들이 마시지 못하는 물로 만들었

기 때문이고, 또한 정수기 업체도 이를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글로벌 회사의 생수, 국내 기업의 생수, 파주시 수돗물의 블라인드 물 맛 테스트에서도 과반이 수돗물이 가장 맛있다고 대답했다는데 말이다.

내가 사는 파주시는 K-water에서 공급하는 광역물과 파주시에서 자체 취수하는 지방물 모두 고도 정수처리해 정수로 공급하는 생산 시스템으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물이 공급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단지인 청석마을 대원호성아파트는 ICT를 접목해 취수원에서 아파트 단지 물탱크의 수질까지 아파트 내 전광판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돗물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물을 사서 먹음은 줄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우리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에서도 이런 말은 보질 못했다. 사실 우리 집에도 정수기가 있었다. 서포터스 활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

각에 정수기를 철수했다. 우리 가족 에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주부가 바뀌면 한 가정의 변화는 쉽게 바뀔 수 있다. 우리 집에 나타난 변화만 해도 수돗물을 냉장 보관해 시원하게 먹는 습관이 생겼다. 우리가 아이와 우리 동네 꼬마 녀석들도 아파트 수돗물 음수대에서 놀다가 물을 먹는다. 주부서포터스 활동을 하면서 타인을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한다. 수도꼭지만 틀면 팔팔 물이 나오는 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파주시 공무원과 K-water 직원들의 고민을 수없이 보아온 나로서는 절약과 낭비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충청지역 보령댐은 저수율이 26.3%로, 10월부터는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에 공급받고 있는 여러 지자체가 제한급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다. 물 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나서야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려나,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사설

국회 예산·법안 졸속 심의 우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면서 예산 및 법안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각 상임위의 예산 심의 역시 파행과 공전의 연속이다.

교과서 공방으로 정쟁만 벌이다가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여야가 치킨게임식 대치를 지속할 경우 내년 예산안 심사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200개 가까운 법안 처리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불행히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 처리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결위는 오는 9일 소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하고 30일까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전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긴다는 로드맵을 갖고 지난달 28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같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는 늦어도 예결특위 소위가 시작되는 9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여권이나 이를 결사 저지하려는 야당이 타협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정치권의 역사교과서 싸움에 국정이 매몰되면서 여야가 입버릇처럼 떠들던 민생과 민생법안도 극도로 외면받고 있다. 화급을 다투는 민생법안 및 각종 경제 활성화법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200개 가까운 법안을 비롯해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제출한 30개 중점 법안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7개는 여전히 계류 중이고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3년 넘게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못 넘은 상태다.

여야는 즉각 예산과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 예산 법정처리 시한이 12월 2일임을 감안하면 속도를 높여야 한다.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 심사와 법안 심의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는 19대 국회를 유권자인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여야의원들은 무겁게 느껴야 한다.

인천시 복지비 매칭, 접근법이 틀렸다

매칭사업은 정부가 지출하는 국비에 상응해 지방도 그만큼의 재정을 부담토록 강제하는 국가 법령이다. 인천시가 이러한 국비 매칭사업을 내년부터 기초단체와도 절반씩 부담하는 소위 ‘재매칭’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그동안 군·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복지비 ‘지방부담분’ 전액을 지출해왔지만, 이제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더욱이 이런 현상은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어 기초단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미 지난 29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도시민들) 여객선 운임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 가결, 중구와 옹진군으로 그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유정복 시장이 역대 인천시장 최초로 전국시도지사업의회 회장에 추대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돼 유감이다. 지방자치의 대변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정작 자신의 자치정부에서 중앙 정부와 같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니 아이러니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부-광역-기초단체 간 행정기능과

재정구조가 다르고, 세입·세출 구조도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업비나 매칭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는 오히려 대책 없이 책임만 떠넘기는 식으로 기초단체의 자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구별 상이한 인구와 산업 구조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인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매칭비를 적용하게 되면 지역간 불균형만 심화될 것이다. 이것이 지방분권의 기수인 시도지사업의회장이 바라는 바인지 궁금하다. 물론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상급단체와의 유사·중복 복지 지출’은 정리되는 게 합리적이다. 하위 자치구도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적극 협조해야 국가 및 광역단체 전반의 재정지출이 최적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상호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치밀한 조율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불과 2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툭 던져 놓고 알아서 기리는 식이면, 아랫물 빼서 윗물 고는 것처럼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임시 변통의 약속만 될 것이다.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질환 한방으로 치료

장정불로단,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

위되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노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02-512-6510 www.kangnamh.co.kr

보청기! 수준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프리미엄 상담 및 조절을 받아보세요.



“보청기가 왕왕거리고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 유럽등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착용하는 보청기가 불편하려고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상담받느냐가 보청기 착용성공의 핵심입니다. 조현원장이 맞추면 편하게 잘 들을수 있습니다.”

높은 전문성 낮은 가격

친절상담/예약 1661-0411 인천시청역 5번 출구 (인천시교육청 정문앞)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무서워도 재밌네?

마을 둘러싼 불륜·미스터리 그려
귀신보는 소녀로 섬뜩한 장면 연출
탄탄한 줄거리에 매회 숨은 복선 등
시청자들의 추리 심리·호기심 자극

체감기온이 0도도 못 떨어진 이 늦 가을에 공포심을 한껏 자극하는 드라마가 한 밤 이불을 뒤집어쓰고 시청하는 재미를 주고 있다.

SBS TV 수목극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은 매회 그 스산하고 처연한 분위기가 기본 나쁜 여운을 안겨주지만, 결말에

대한 궁금증으로 다음회를 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드라마 속 범인과 화면 곳곳에 놓인 복선의 키포인트를 찾기 위한 추리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은 무엇보다 단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내는 장면이 없다는 점에서 근대 보기 드문 촘촘한 스토리를 자랑한다.

지방 소도시를 뒤덮은 불륜과 처정 평화로운 조용한 지방의 소도시 아치아라. 겉으로 보기엔 순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로 보이지만, 실상은 마을의 굴목 산업인 해원철강을 이끄는 서장권(정성모 분) 도의원 가족을 중심으로 이

해관계와 권력의 수직관계가 확실하게 형성된 곳이다.

이 마을에 어느 날 2년여 암매장됐던 백골사체가 발견되고, 전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연쇄살인범의 마수가 이 마을에까지 미처오면서 고요했던 마을의 일상이 산산이 조각나는 과정을 그린다.

누가봐도 아름다운 정체불명의 여성 김혜진(장희진)이 몇 년 전 어느 날 이 마을에 이주해 들어오면서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됐다. 발견된 백골사체의 주인공이 2년전 마을에서 총격을 감행한 김혜진으로 드러나고, 알고보니 마을의 많은 남자들이 김혜진과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찢어지게 가난해 마을의 멸시를 받다가 해원철강의 사모님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신분상승한 윤지숙(신은경)과 그녀의 동복동생 강주희(장소연), 윤지숙의 의붓아들 서기현(은주완)을 중심으로, 자폐증을 앓는 소년, 여고생 제자와 미묘한 관계인 미술선생, 밤마다 나타나는 여장남자, 무당 등이 이 마을의 수상한 기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불륜과 처정을 핵으로, 질투와 앙심, 복수가 그 핵을 둘러싼 구조라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하는 포석을 깔아놓았다.

핏줄에 대한 집착이 주는 공포 드라마는 이처럼 인간의 추악한 이면과 함께 핏줄에 대한 집착을 스토리의 근간으로 삼으며 원초적인 공감을 이끌어낸다. 문근영이 연기하는 주인공 한소윤의



가족과 해원 철강 가문에는 모두 복잡한 핏줄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 작은 마을 아치아라의 많은 인물이 핏줄에 대한 일반적이지 않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친부모가 누군인지 모르거나 입양 이후 파양됐고, 재혼 가정이거나 남의 핏줄

을 키웠고, 빚속의 아이를 지켰거나 자신의 아이를 팔았다. 작은 마을 아치아라는 이웃집 손가락 수까지 알 수 있을 만큼 한마을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폐쇄적인 집단성을 발휘하며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다.

텔레비전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KBS 결격 다큐멘터리 6:00 KBS 뉴스 광장 7:50 인간극장	6:00 2TV 아침	5:00 MBC 뉴스 5:10 사람, 산 6: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7: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5:00 SBS 뉴스 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6:00 모닝와이드 <-1-3부->	6:00 TV 포럼 <경인의 아침> 6:50 TV 주치의 7:05 특선 연예뉴스 7:40 OBS 뉴스	5:00 EBS 생활 영어 40 요리비전 6:10 EBS 인문학 특강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30 뽀롱뽀롱 뽀로로 45 로보카 폴리
8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라> 9:40 여유만만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뉴스 9:45 기본 좋은 날	8: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머리> 9:10 좋은 아침	8:10 영상에세이 <풍경이 있는 여행> 8:40 로드 다큐 <만남> 9:40 OBS 뉴스	8:00 닝동영 유치원 45 코코코 다코 9:00 크레명의 창의력 광광 40 부오
10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 가족 11:00 KBS 네트워크 특선 11:55 인생 우리말	10:40 지구촌 뉴스 11:00 월화 드라마 <발칙하게 고고>	11:00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0:00 OBS 일요드라마 <꿈아> 11:10 Music & Movie 11:40 OBS 뉴스 <경인투데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20 세계테마기행
12	12:00 KBS 뉴스 1:00 역사적 그날 1:50 별별 가족 1: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1:00 시간을 달리는 TV	12:00 MBC 정오 뉴스 12: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1:1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12:00 SBS 뉴스 12:50 순간포착 스페셜	12:00 연예매거진 1:00 즐겨찾기 영화일주	12:00 EBS 정오 뉴스 10 EBS 스페이스 공감 1 1:05 지식채널e 40 출근을 수확 EBSMATH 50 온스타일의 오아시스
2	2: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3:00 한국인의 밥상 3:55 오늘의 경제	2:00 KBS 뉴스타임 2:10 생생정보 스페셜 3:05 후두스 - 잃어버린 숲 3:30 자몽부채상사귀	2:30 구르기 석사교실 3:00 MBC 뉴스 3: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3:40 문화사책	2:00 넷드릭 현장! 고향이 보인다 3:00 SBS 뉴스 3:10 시사하셨어요?	2:00 구르기 TV 2:55 인생열전 <살 맛 나는 세상> 3:55 행복 부동산 연구소	2:00 미술탐험대 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3:00 꼬마 철학자 휴고 15 꼬마 기사 마이크 40 모피와 친구들 50 크레명의 창의력 광광
4	4:00 오늘의 경제 4:1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0 KBS 뉴스 5:20 시사선전	4:00 TV 유치원 4:30 이육성 PD의 요리인류 키친 4:40 동물의 세계 5:00 글로벌 남평책내내, 남편 5:55 글로벌 24	4:25 MBC 일일 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5:00 MBC 이브닝 뉴스	4:00 율은 생명이다 4:30 내 마을의 크레파스 5:00 SBS 뉴스파워 5:30 출동! 포돌이가 간다	4:25 TV 주치의 4:40 OBS 뉴스 & 이슈 5:40 제테크 119 보험의 기술	4:30 코코코 다코 45 닝동영 유치원 50 Why-최고! 호기심딱지 5:15 두다다코 45 로보카 폴리
6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 클럽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30 우리말 겨루기	6:30 2TV 저녁 생생정보1 7: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일일 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7:55 MBC 뉴스데스크	6:00 생방송 투데이 7:20 일일 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6:40 플래닛어스 7:40 OBS 뉴스 M	6: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50 다문화 고부열전 스페셜
8	8:25 일일 연속극 <우리집 골단지> 9:00 KBS 뉴스9	8:30 2TV 저녁 생생정보2 8:55 위기탈출 넘버원	8:55 일일 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9:30 리얼스토리 논	8:00 SBS 뉴스 8:55 생활의 달인	8:30 오늘의 월드 뉴스 9:00 특선 연예 뉴스 9:35 언더버 보스 넥스트	8:40 다큐 오늘 5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10	10:00 특집 가요무대 아름다운 우리 11:10 KBS 뉴스라인 11:40 TV 책을 보다	10:00 월화 드라마 <발칙하게 고고> 11: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11:10 MBC 다큐 스페셜 <행복찾아 3만리>	10:00 특별기획 <유희이 나르샤> 11:15 힐링 캠프 500A	10:30 OBS 뉴스라인 11:05 로드 다큐 <만남>	10:45 달라졌어요 11:35 프레임 S
12	12:20 해외결정 드라마	12: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0 특파원 현장보고 1:30 스포츠 이야기운동화(화)2.0	12:10 MBC 뉴스 24 12: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2:45 2015 코리아오픈 에어로빅 챔피언십 1:45 TV 예술 무대	12:35 나이트 라인 1:05 SBS 골프 2:05 프로야구 중계서 3:00 TV 동물농장	12:05 멜로다큐 <가족> 1:00 Music & Movie 1:30 인생열전 <살 맛 나는 세상>	12:05 지식채널e 10 2015 청춘인문 강좌 1:00 EBS 초대석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드라마	영화
◇ JTBC 07:30 JTBC NEWS 아침 & 10:00 히든싱어 14:35 JTBC 뉴스 현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9:55 JTBC 뉴스를 22:50 비정상회담 ◇ TV조선 07:0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09:50 김광일의 신통방통 14:30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 16:00 정성민의 시사탐크 20:45 TV조선 뉴스쇼 '판' 23:00 이것을 실화다 ◇ 채널A 09: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10:20 시사 인사이트 15:00 직언직설 16:30 캐드난마 21:40 채널A 종합뉴스 23:00 풍문으로 들었쇼SHOW	◇ KBS드라마 08:20 장사의 신 - 객주 2015 10:40 별이 되어 빛나라 13:15 부탁해요, 엄마 15:50 다 잘될 거야 20:30 불후의 명곡 22:15 나를 돌아봐 ◇ MBC드라마넷 05:30 전설의 마녀 09:30 그녀는 예뻤다 13:25 화려한 유혹 17:10 위대한 조강지처 19:05 복면가왕 22:20 무한도전 ◇ SBS플러스 07:40 애인 있어요 12:00 어머니는 내 머리 13:30 유희이 나르샤 17:30 돌아온 황금복 19:30 주먹쥐고 스피스 21:30 동상집을 캔집가 팬클럽	◇ OCN 10:50 CSI 시즌9 12:40 나니아 연대기 2 15:20 연노운 17:20 특수본 19:30 나우 유 씨 미:마술사기단 21:30 기술자들 ◇ 채널CGV 09:20 패션왕 11:40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13:40 클라우스 아틀라스 16:50 콘스탄틴 19:10 더 록 22:00 8월의 크리스마스 ◇ 스크린 11:15 퓌키링 13:30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16:05 마인드스케이프 18:05 맨홀 20:05 보트 22:20 본 엔티메이팅
연예·오락	스포츠	뉴스
◇ Mnet 07:20 M morning 10:40 Mnet Music Twit 16:20 Daily Music Talk 17:10 Mnet 슈퍼스타K7 18:30 Live on M 23:0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 코미디TV 07:45 정글의 법칙 10:00 꽃보다 할배-스페인편 13:15 우리동네 예체능 15:55 런닝맨 19:10 마이 리틀 텔레비전 21:55 맛있는 녀석들	◇ KBS N 스포츠 12:00 청춘FC 허그리 일레븐 13:00 개그콘서트 14:30 우리동네 예체능 18:50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우리은행> 22:00 축방전설 ◇ MBC 스포츠 플러스 13:30 2015 FFA U-17 월드컵 <브라질 vs 나이지리아> 19:00 2015 메이저리그 WS <캔자스시티 vs 뉴욕메츠> 22:00 한국시리즈 특집 베이스볼 투나잇	◇ 연합뉴스TV 08:00 라디오 투데이 09:50 남현호의 뉴스포커스 12:40 뉴스현장 16:45 뉴스워치 20:50 뉴스 Review 22:50 투나잇 23 ◇ YTN 08:00 이슈 오늘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NIB 남민전방송(채널 4) 09:05 NIB 초대석 10:05 우리동네 우체통 11:05 NIB 평평노래교실 13:00 전통시장 콘서트 16:00 북시터인턴 18:00 찾아라 인턴잡집
◇ tvN 08:30 응답하라 1994 10:00 삼시세끼 여름편 시즌2 13:30 집밥 백선생 16:20 코미디 빅리그 20:40 명단공개 23:00 풍선껌	◇ SBS 스포츠 12:50 15-16 EPL <11R, 첼시:리버풀> 14:35 EPL 리액션 토크 18:45 15-16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KB손해보험> 22:00 2015 베이스볼 S	

<p>오늘의 운세</p> <p>(김새창·수원창저널스) 青鶴人 ☎010-5393-0358</p>	<p>36년생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인연이 생길 듯. 48년생 너무 분주하여 생각할 시간도 없겠다. 60년생 도움을 줄 때는 사실을 버릴 것. 72년생 계획했던 일이나 약속에 변화를 주지 마라. 84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p> <p>37년생 고생은 하겠지만 뜻을 이룬다. 49년생 결과를 대범하게 받아들여라. 61년생 건강관리가 요망된다. 73년생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시작하라. 85년생 나의 가치를 보여줄 기회가 생기겠다.</p> <p>38년생 경쟁자의 도전이 심하다. 50년생 재물 운이 불길하여 적게 얻고 많이 나가겠다. 62년생 이성 관계에 신중할 것. 74년생 힘든 일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보라. 86년생 마음이 상쾌해진다.</p>	<p>39년생 소유에 대한 애착이 커지니 욕심은 금물. 51년생 재물 생기고 자손에 경사가 있겠다. 63년생 법률적인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할 것. 75년생 확장하거나 확대해도 좋다. 87년생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면 후회할 일 생긴다.</p> <p>40년생 세심하게 살펴야 이룬다. 52년생 정신적, 물질적으로 안정될 듯. 64년생 작은 일도 대응하지 말고 신중 할 것. 76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할 것. 88년생 뜻밖의 일로 즐거움이 넘친다.</p> <p>41년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기이다. 53년생 남에게 끌려다니기 쉬우니 중심을 잡을 것. 65년생 서두르지 말 것. 77년생 오늘은 몸과 마음이 가볍겠다. 89년생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일 생기겠다.</p>	<p>42년생 연변으로 타인을 즐겁게 한다. 54년생 짜증낼수록 어려움만 가중되니 참을 것. 66년생 급한 마음에 실수를 지를 수 있다. 78년생 우유부단한 행동하지 말 것. 90년생 몸에 상태를 염려하거나 다칠 수 있다.</p> <p>43년생 편안하 하루 보내겠다. 55년생 기회, 창안, 중간소개 하기 좋은 날이다. 67년생 자녀에게 승진이나 합격 등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다. 79년생 작은 선행 배움에 불 것. 91년생 관리가 중요하다.</p> <p>44년생 작은 근심에도 감정의 기복이 크겠다. 56년생 오늘에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할 것. 68년생 사일에 큰 어려움을 겪겠다. 80년생 명분은 있으나 실리가 부족하다. 92년생 내 뜻을 이룰 수 있다.</p>	<p>45년생 무언가 기념할 만한 일이 생기겠다. 57년생 부부간에 감정 상할 일 생길 수 있다. 69년생 개미 이성과의 만남은 피할 것. 81년생 수입이나 이익이 발생할 듯. 93년생 너무 인색하면 인심 잃을 수 있다.</p> <p>46년생 큰 부담없이 친분을 다지게 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 58년생 빌려놓은 일물 있다면 오늘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70년생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가야한다. 82년생 이치를 따지면 자연히 길이 보인다. 94년생 손해가 있을까 염려다니 모든 일을 주의할 것.</p> <p>47년생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 59년생 불만족은 조금씩 해소된다. 71년생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가겠다. 83년생 고였던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 95년생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할 것.</p>
--	---	--	--	---

도서관출판

유림

HIGH QUALITY COLOR PRESS & PUBLISHING

인쇄전문 교육관계기관, 관공서, 기업체, 각종 판촉물, 상패, 현황판 제작

대표서창옥 인천시 남구 송의동 129-62 TEL 032)881-4380 FAX:032)881-4379

“음악으로 세상 아름답게 바꾸고파 ‘외길인생’ 걸어왔죠”

월요일에 만나는 문헌인
김종문 필그림앙상블 단장

“돈만 좇는 인생을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계속 무대에 서지 못했겠죠. 20여 년간 해외 공연을 돌며 더 재능이 있는 예술인들이 우리 무대 앞 관객으로 앉아 있는 경우를 솔하게 봐 왔습니다. 결국 음악할 때는 순수해야 한다는 믿음을 지켜 온 것이 여기까지 온 비결 아닌 비결입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란 사명감으로 음악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음악단체로 유명한 필그림앙상블(Pilgrim Ensemble)의 김종문(51) 단장의 이야기이다.
무료 자선 공연 등 이웃과 아름다운 동행을 계

‘사회에 봉사’ 연주단 초심 잃지 않고자
태국 산악지역민 위해 자비로 축제 참가
악기 지원 시민 교육·나눔 공연 등 힘써

속 실천하고 있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SBS 관현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김진형(55·여)씨가 1991년 결핵에 걸려 “더 늦기 전에 사회를 위해 음악으로 봉사하는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출발한 연주단이기 때문이다.
2003년 뒤늦게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김종문 단장이 합류하면서 클래식과 팝을 접목시킨 연주로 색깔을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첫 해외 공연인 2004년 태국 바마이 축제는 필그림앙상블 단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

다. 김 단장이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자비로 참가해야 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단장으로서 예술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구길 수가 없어 반대했지만 한 번 도전해 보자는 단원들의 마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말았는데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태국 산악지역에 사는 원주민 1천여명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 2박 3일을 걸어 왔고, 연주마다 큰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보고 감동 그 자체였다가 그의 설명이다.
계속된 해외 공연이 주목받으면서 세계적 무대인 뉴욕 카네기홀에서 2007년 9월 22일 자선 연주회도 가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성근 연주팀이라는 것을 과거 경력과 공연 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개막식 초청 연주, 한일월드컵

전야제 음악 작곡, 인천아시아게임 유치 기념 ‘인천의 노래’ 작곡·연주 등이다 그들의 열매이다.
몇 년 전부터 해외보다 인천 중심으로 공연을 펼치면서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예술인들에게 수여하는 ‘인천예총 예술상(연예부문)’도 지난해 김 단장이 대표로 났다.
필그림앙상블은 최근 인천에서 나눔 공연과 함께 음악교육 사업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 악보와 악기를 지원해 음악을 가르치는 필그림 앙케스트라 운영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 필그림앙상블 인천녹음실에서 열린다.
김종문 단장의 꿈은 한 가지다. “가족 또는 삼대(조부모-부모-손주)가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고향 인천에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일 기자 kik@kohoilbo.co.kr



국내 최대 크기 향유고래 골격 동식물·광물 등 표본 1000점 한눈에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화자연사박물관 전시실, 1층에 전시돼 있는 향유고래 골격.

강화자연사박물관 6일 정식 개관
9개 테마 생물 이동 과정 등 전시
시범 운영 기간 3만 명 발길 ‘호평’

강화군은 오는 6일 오후 2시 강화자연사박물관 광장에서 군민들의 숙원인 강화자연사박물관을 정식 개관한다.
강화자연사박물관은 국내 25억 원, 시비 57억 원, 군비 15억 원 등 총 9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4천888㎡에 총면적 2천71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

다.
전시실은 992㎡ 규모로 태양계의 탄생, 인류의 진화, 강화갯벌, 생물의 이동 등 주제별로 9개의 존(zone)으로 구성됐으며 광물, 화석, 동식물 등 1천여 점의 다양한 표본들이 전시돼 있다.
1층 로비에는 2009년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에서 사체로 발견된 국내 최대 규모의 향유고래 골격이 전시돼 있다. 대형 고래가 서해안에서 발견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고래 생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자연사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상과 디오라마 등이 설치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교육, 정보를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강화공충농원을 운영하다 작고한 고(故) 박재원 선생의 뜻에 따라 유족이 기증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곤충이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강화자연사박물관 주변에는 ‘전국에서 가장 예쁜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박물관의 목표 아래 벚꽃거리, 화단, 화분 등

이 조성돼 있어 깊어 가는 가을을 즐기기도 제격이다.
이 밖에 강화자연사박물관에 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화고인돌과 역사박물관을 함께 둘러볼 수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강화자연사박물관은 건립을 완료하고 지난 8월부터 임시 개관, 시범 운영하는 동안 10월 현재 3만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관람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o2@kohoilbo.co.kr

재인폭포에 얽힌 ‘전설’ 무용극으로

5일 연천수레울아트홀서 공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창작무용극 ‘재인폭포, 사랑을 품다’를 공연한다.
경기도 이미숙무용단이 주관하는 창작무용극 ‘재인폭포, 사랑을 품다’는 연천읍 고문리에 위치한 재인폭포에 얽힌 설화를 배경으로 만든 작품이다.
출타기를 업으로 삼는 출타기 재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마을에 새로 온 원님, 재인의 아내의 미모에 매료된 원님은 아

내를 빼앗기 위해 마을에 큰 잔치를 열고 재인에게 출타기를 시킨 후 그 줄을 끊으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
죽음을 직감했지만 재인은 출타기에 응했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재인의 아내는 한을 품고 원님을 폭포에 끌어들이고 그의 코를 물어뜯고서 한 떨기 꽃처럼 폭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전석 무료.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능.
문의: 연천수레울아트홀 www.sureul.com, ☎031-834-3770
정동신 기자 dsc@kohoilbo.co.kr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 시상식... 문인화 부문 김애준 씨 대상

‘제6회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 시상식이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인천 남구청과 남구미술협회가 주최한 이번 미술대전은 65세 이상의 실버세대가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순수 아마추어 실기대회로,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3일 한국화, 서양화, 서예(한문, 한글), 문인화 등 5개 부문에 걸쳐 열린 경연이 펼쳐졌으며, 문인화 부문의 김애준 씨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회정 심사위원장은 “노인들의 참여 자체가 큰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테크닉보다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예술성 높은 작품을 완성했느냐를 세심하게 심사했

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 이어 다과회, 개막 테이프 커팅이 진행됐다.
윤석에 남구미술협회는 참가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입상작은 오는 5일까지 전시된다.
김재성 기자 jskim@kohoilbo.co.kr



냉난방 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하세요.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린트 이영후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남양주시청 용인시청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영등포경찰서

인천·부천 (032)471-6020
남수원·화성 (031)233-8061
북수원 (031)241-6920
양평·용문 (031)771-7782

안양·안산 (031)422-1237
고양·일산 (031)907-6029
의정부 (031)872-5576
남양주 (031)594-4416

과천 (02)502-0494
광명 (02)2625-7904
성남 (031)733-4416
하남 (031)734-4417

안성 (031)676-2885
의왕 (031)241-6921
평택 (031)657-0423
오산 (031)372-0893

구리 (031)567-5576
포천 (031)531-5567
양주 (031)842-5576
파주 (031)947-5576

동두천 (031)861-5576
김포 (031)907-6029
용인 (031)322-7751
이천 (031)636-7783

광주 (031)767-0470
곤지암 (033)243-1728
가평 (033)243-1728
춘천 (033)241-8954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블로그 <http://blog.naver.com/waterproof01> www.IPALG.co.kr



의정부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에 성금 전달

의정부시는 의정부평화비(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동참하고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773만2천 원을 지난달 29일 의정부평화비 건립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의정부평화비 건립추진위는 반인권·반역사적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의정부평화비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큰 아픔을 안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평화비 건립 모금에 시 전 직원이 동참해 성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민주평통 부천시청 지역 중학교 두 곳서 통일교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는 최근 부천남중학교와 성주중학교 학생들에게 '2015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실상과 통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인 주수현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와 김정원 GK하나예술단 단장이 특강을 맡았다.

자신들의 북한 이탈 동기와 북한의 실상 그리고 북한 초·중·고 소개 및 언어의 차이 등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설명으로 진행했다.

김기명 부천시협의회장은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은 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및 통일 의지와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매년 민주평통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통일교육이다”라고 전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화성 병점1동-참나눔 의료재단 취약층 지원 MOU

화성시 병점1동은 지난달 30일 관내 저소득층의 의료 지원을 위해 의료법인 참나눔 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입원 치료와 외래 진료 시 의료비 지원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 무료 가정방문 진료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중민 참나눔 의료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 대상 연말 생필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홍호 병점1동장은 “앞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단체들과의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후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농협 안양시지부 부림중학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

농협 안양시지부는 지난달 30일 부림중학교에서 안양 YWCA와 함께 등굣길 학생 1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애들이! 밥 먹자’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처한 산지농협과 농민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임승택 농협 안양시지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아침밥을 챙겨 먹는 건강한 식습관이 널리 확산돼 쌀 소비 촉진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택 기자 jtle66151@khihoilbo.co.kr

45년 직장생활 통큰 기부로 ‘아름다운 은퇴 준비’

길광준 주한미군 1지역 민사처장, 아너소사이어티 900호 가입 동두천 지역서 꾸준히 봉사... “평범한 사람들 동참 계기 되길”

지난 10월 24일 주한미군 제1지역 사령부 길광준(64)민사처장<사진 왼쪽>이 아너 소사이어티 전국 90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는 2007년 12월 아너 소사이어티 설립 7년 10개월 만에 전국 900호 회원 가입과 동시에 누적 기부액 983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길 민사처장은 “봉급생활자로 빠르게 살면서 힘들게 마련한 노후자금이지만 45년 직장생활을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과 기부 결정을 지지해 준 가족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내겐 특별한 인생 스토리도 없고, 기부자를 바라보는 시선 한편에 ‘과시욕 아니냐’는 부정적 인식도 여전한 것을 안다”며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뿐 어떻게 쓰는데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로 완납을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 “기업인 또는 유명인들이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고액 기부자 클럽에 직장인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나눔문화에 있어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며, 많은 동참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길 민사처장은 의정부·동두천 지역의 관공서와 미군 사이에서 지역 현안을 중재하고 있으며, 88서울올림픽조직위 의전장교, 주한미군 카투사 지역대장을 거쳐 중령으로 예편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동두천시의 A보육원에 컴퓨터를 기증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숨은 봉사자로 알려졌다.

한편, 아너소사이어티 직종별 가입자는 기업인 454명, 전문직 91명, 자영업자 50명, 법인단체 임원 20



명, 공무원 12명, 스포츠인 7명, 방 송연예인 10명, 기타(익명 회원 포함) 256명이다.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회원들로는 홍명보 홍명보장학 재단 이사장(9호), 최나연 LPG프

로골프 선수(197호), 박지성 JS파 운데이션 이사장(555호), 김태균 한 화이글스 야구선수(183호), 영화배 우 수에(200호) 등이 있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hihoilbo.co.kr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열고자 하는 사회지도층의 모임.

역사와 자연 숨쉬는 남한산성 ‘함께 가꿔요’

경기문화재단-호반건설 MOU... 임직원 봉사 등 확대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최근 호반건설과 세계 유산인 남한산성의 문화유산 가꾸기 및 생태계 보존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남한산성에서 환경 정화, 야생조류 새집 달아주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남한산성의 문화유산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돕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남한산성 문화유산 지킴이, 생태계 보존활동, 임직원 봉사활동 등 양 기관의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장대훈 센터장은 “아름다운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가꾸는 활동의 첫 걸음을 호반건설과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은 남한산성을 가꾸고 보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반건설 전종규 대표이사는 “2010년부터 진행된 호반사랑나눔이 활동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정기 봉사활동, 차량 지원 등 남한산성 지킴이로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한산성은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산성으로 ‘주장성’이라고도 불린다. 성벽 전체 둘레는 12km로,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대별 축성술 발달 단계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당시의 방어 시설과 관청, 군사훈련 시설 등이 남아 있다. 천연기념물도 지정된 조류와 식물들도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독립정신 머금은 나라꽃 만발

삼성전자, 평택호 현충탑광장 벽화 그리기 행사

평택지역 3·1운동 발상지인 평택호 담벼락에 대형 무궁화가 피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평택호관광지 내 현충탑 광장에서 ‘벽화 그리기 및 공공화장실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삼성전자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한 이번 환경 개선 활동은 삼성전자 직원들과 가족, 시민 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평택지역 3·1운동의 발상지인 평택호 현충탑 광장은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지만 주변 시설들이 낡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평택호 현충탑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전하고자 50여m에 달하는 화색 빛 담장을 3·1 만세운동과 무궁화 등 애국의 메시지가 담긴 그림



으로 채워 화사하게 변화시켰다. 또 공사비 3천500만 원을 들여 광장 내 공공화장실의 장호와 세면대, 변기 등 기자재를 새롭게 교체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바꿨다.

공사 작업에는 삼성전자 사업장의 건설·전기·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흥·화성단지 총괄 직원들이 참여해 재능을 나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글로벌 미세스캡’ 성남 누빈다

성남중원경찰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치안봉사단 발대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외국인들의 범죄 예방 홍보 등 협력 치안활동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치안봉사단 ‘글로벌 미세스캡’ 발대식을 가졌다.

중국·일본·베트남 출신 10여명의 다문화 치안봉사단은 외국인 고용 기업체를 방문해 4대 사회화 등 생활 속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권의 보호에 힘쓰면서 범죄 발생 시 통역요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봉사단 활동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편견 해소 등 사회적 통합 분위기 조성과 그들이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을



개척해 외국인들의 사회적 안정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c@khihoilbo.co.kr



군포 주몽종합사회복지관 이마트와 함께 바자회 열어

군포시 주몽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달 29일 이마트 군포점과 함께하는 ‘2015년 희망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본중심상가 이마트 광장에서 2천 명의 지역주민이 함께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양한 생활용품과 의류 및 소품 등을 판매해 저소득 가구 청소년 장학금과 복지관 프로그램 사업비를 마련했다.

군포=박원규 기자 wkp@khihoilbo.co.kr



오산중앙로타리클럽-충남홍성광천 지구와 자매결연

국제로타리 3750지구 오산중앙로타리클럽은 충남 홍성군 국제로타리 3620지구 광천로타리클럽과 최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광천로타리클럽 사무실에서 열린 결연 조인식에는 오산중앙로타리클럽 지익환 회장, 임명재 전 회장, 송영만 전 회장, 김재영 전 회장, 오산백합로타리 회장, 광천로타리클럽 성하용 회장 등 양측 회원 100여 명이 참석, 상호 우호 클럽을 결성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hihoilbo.co.kr



양평경찰서 어른신 명예교통경찰 발대... 안전홍보 나서

양평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담당할 노인 명예 교통경찰관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는 전진진 경찰서장, 김선교 양평군수, 김용녕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장 등 각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명예 교통경찰관 위촉은 군의 교통 사망사고 22건 중 12명이 6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책회의에서 전 서장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이뤄졌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가천대 간호대학, 제6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열어

가천대 간호대학이 지난달 30일 메디컬캠퍼스 강당에서 '제68회 가천대학교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선서식에는 노연홍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부총장, 최미리 가천대 기획부총장, 박국양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훈 기자 ljh@khihoilbo.co.kr



육군 3보급단, 군 최초 보급물류서비스 ISO9001 인증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3보급단(단장 장동원 대령)은 지난달 28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보급품 물류서비스 분야(일반·의무물자, 화력·기동·통신·특수무기 수리부속 보관 등)에서 전군 최초로 ISO9001(국제표준화기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표준협회 주관으로 KSQ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서류·현장 등)를 거쳐 받게 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인천비전기업협-남동구, 일자리 창출 등 MOU 체결

인천비전기업협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남동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남동구의 산·관 상생과 협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도하는 인천비전기업협회와 일자리 창출 및 상호 우호적 협력체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강화소방서, 안양대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진행

강화소방서는 지난달 30일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에서 테러 및 화재에 의한 대형 재난 상황을 대비해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18개 기관 및 단체, 인력 367명, 장비 39대가 동원됐으며 안양대에 적 특자부대 요원들의 테러로 인해 화재 및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진행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o2@khihoilbo.co.kr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이젠 끝 청소년들이 말하는 '나의 다짐'

본보-푸르미가족봉사단 '나의 주장 발표 대회' 건전 놀이문화 조성·어른들의 술선수범 등 임치

기호일보(대표 한창원)와 푸르미가족봉사단(대표 박위광)이 공동 주관한 '제7회 청소년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나의 주장 발표' 본선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본선대회는 지난달 300명의 초·중·고교 학생의 참가 신청

을 받아 예선 원고 심사를 거쳐 31일 인천시교육청 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대회장의 열기가 뜨거웠으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도록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특히 어른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에서 모범을 보여 달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문의:푸르미가족봉사단 ☎032-435-5353 김혁연 기자 khy@khihoilbo.co.kr

공항·항만분야 물류산업발전 기여 공로



인천공항공사, 2015 물류대상 단체부문 최고 '대통령상' 영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물류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2015 물류대상 시상식'에서 한국물류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물류산업유공 정부 포상에서는 개인과 단체 등 총 11명이 수상했으며, 인천국제

공항은 단체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국제공항은 그동안 항공 수송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재균 기자 ajk@khihoilbo.co.kr

배준영 인천항만물류협 회장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배준영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은 지난달 30일 '물류의 날'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배 회장은 2013년 3월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맡은 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달성과 인천신항 개항, 인천내항 8부두 개방 등 항만물류계의 현안을 원만히 풀어가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준경 기자 jongjb@khihoilbo.co.kr

수술법 배우러 멕시코에서 왔어요

현대유비스병원 척추내시센터, 의사 6명에 척추수술법 연수

인천시 남구 현대유비스병원은 지난달 29일 척추내시센터의 치료법을 배우고자 방문한 멕시코 엔젤레스 델 페드레갈병원의 가브리엘 오스칼 로자스 데 라 로사 박사를 비롯한 신경·정형외과 의사 6명을 대상으로 최신 척추수술법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정명훈 유비스병원 과장이 집도한 척추 비수술 치료법인 고주파 자기장 수핵성형술과 풍선카테터를 이용한 신경성형술의 참관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멕시코 의료진들은 시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시술 후 과정의 여러 임상 경험과 시술 방법에 대한 강의가 펼쳐졌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부고
▶이금재(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 사무관)씨 모친상=1일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8호. 발인 3일 오전 9시. ☎02-2276-7698

세일글
주요 보직 두루 거친 베테랑



강경훈 인천지방보달청장

“지역 수요기관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인천조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직원 간의 소통과 단합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경훈(47) 신임 인천지방조달청장의 취임 일성이다. 대구 태생인 신임 강 청장은 영남대(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제39회) 출신으로, 1997년부터 조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강 청장은 그동안 정보기획과장과 전략기획팀장, 경남지방조달청장, 행정관리담당관, 소평물기획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 조달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배준경 기자 jongjb@khihoilbo.co.kr



박선국 제14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취임식 열려

제14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에 박선국(53) 신임 청장이 취임했다.

지난달 30일 인천중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진 박 신임 청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중소기업청 정보화지원과, 국제협력과, 공공구매관리과, 기업금융과 등 중소기업 정책 수립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특히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현장 정책을 펼치며 기획과 집행의 균형감 있는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박 청장은 취임사에서 “중소기업의 정책적 고객인 기업을 위해 먼저 찾아가는 행정, 적극적 행정, 소통 행정을 펼쳐 보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 회원사 잇단 수상

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는 최근 대전 ICC호텔에서 열린 '2015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회원 기업들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오현규 (주)KOREEL 대표는 신제품 개발과 기술 교류, 공정 개선을 통한 경영 혁신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또한 이대훈 (주)한진보일러 대표는 '기술융합사업화' 분야에서 연구 전담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생형만·열매체유 보일러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 향상 및 신시장 창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았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인사

| 한국석유관리원 | ▶사업이사 신성철

| 성남시 | ◇승진 <4급>▶행복도시창조담당 직무대리 한승섭 ▶푸른도시사업소장 ▶ 이정도 ▶평생학습원장 ▶ 박재양 ▶도시개발사업담당 ▶ 이근배 <5급>▶신흥2동장 직무대리 전공연 ▶위례동장 ▶ 황규선 ▶금평1동장 ▶ 박동화 ▶하대원동장 ▶ 흥성대 ▶이매2동장 ▶ 최경자 ▶운중동장 ▶ 이춘자 ▶태평4동장 ▶ 권동연 ▶서현2동장 ▶ 진명래 <6급>▶재정경제국 우길준 총기정 이인희 한경철 ▶의회사무국 이창근 ▶공보관실 박남희 ▶복지보건국 안훈석 김동호 ▶행정기획과 김재권 ▶교육문화환경국 이선영 ▶도시주택국 안도연 이승진 ▶평생학습원 전미정 최선경 ▶중원구 김주태 ▶분당구 김상문 이상용 ▶수정구보건소 박현경 ▶분당구보건소 김주엽 ▶푸른도시사업소 서정범

◇전보 <4급>▶재정경제국장 박세중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5급>▶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환경정책

과장 김선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세정과장 김남일 ▶디지털정책과장 김위성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민승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도서관지원과장 이창기 ▶중앙도서관 권선용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이연자 ▶ 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시흥동장 차재성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김국봉 ▶ 복지지원과장 조대호 ▶ 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은행1동장 김봉현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권관병 ▶ 세무1과장 손동래 ▶ 수내2동장 ▶ 수내3동장 ▶ 금곡동장 조수희 ▶정자1동장 우한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용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도시개발과장 연규용 ▶중원구 건설과장 이주성 ▶분당구 건축과장 김필수 ▶삼평동장 강부수 <6급>▶감사팀장 황민택 ▶안전협력팀장 서기원 ▶사회복지팀장 김인호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가족정책팀장 전병국 ▶식품정책팀장 김희선 ▶의료정책팀장 김명호 ▶인재양성팀장 이강석 ▶후생복지팀장 이혜중 ▶기록물관리팀장 권미순 ▶의회협력팀장 이흥렬 ▶콜센터운영팀장 홍진희 ▶생활정보팀장 황종선 ▶학교급식팀장 임철 ▶청소년팀장 박관수 ▶문화팀장 신정주 ▶관광팀장 임수택 ▶문화재보존팀장 홍상표 ▶

체육정책팀장 박상용 ▶사회적기업팀장 채길자 ▶노사협력팀장 정동락 ▶세외수입세납징수1팀장 왕철 ▶세외수입세납징수2팀장 한희 ▶주차과장팀장 김형렬 ▶계약1팀장 최홍석 ▶계약2팀장 서남용 ▶도시행정팀장 김양기 ▶도시미관팀장 이규중 ▶자치전문화팀장 김복환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천지열 ▶분당구보건소 ▶ 김세진 ▶청소기획팀장 이강두 ▶재활용팀장 이세형 ▶공원관리팀장 전태갑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수도행정팀장 송기철 ▶개발지원팀장 이창우 ▶관리운영팀장 최대범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분당구도서관 정보봉사팀장 조지영 ▶구미도서관 ▶ 김준근 ▶ 무지개도서관팀장 문덕배 ▶관교도서관 어린이도서관팀장 김일한 ▶차량등록팀장 강성욱 ▶영생관리행정팀장 배수중 ▶영생관리민원팀장 이홍신 ▶감사관실 안상준 ▶복지보건국 박정규 ▶행정기획과 강상구 ▶교육문화환경국 최순관 ▶교통도로국 김희섭 ▶행복도시창조단 김인규 오세근 ▶평생학습원 박정숙 ▶수정구 공창호 민후식 박대식 손명숙 이원배 최미숙 유철희 이정열 김정원 전은희 이억범 김광병 정상철 박재덕 ▶중원구 김건규 김규섭 김창우 문병일 손은배 엄중배 지명숙

곽현일 선병규 김복현 이성준 정진선 김현정 김현수 강우모 김기남 양희중 정광명 ▶분당구 강도규 박옥봉 방해자 송성호 신경철 임혜숙 한영길 한인수 박영숙 서미현 지정식 유숙영 채수범 송찬우 박상훈 유호진 서병철 김영화 ▶조사1팀장 전만우 ▶체납세징수2팀장 이상환 ▶행정기획과 김중미 ▶철단산업팀장 이성진 ▶게임산업육성팀장 이용길 ▶수도정보팀장 손한기 ▶시설관리팀장 김진성 ▶복지보건국 이정현 ▶맑은물관리사업소 최태형 ▶평생학습원 이상돈 ▶식품산업팀장 류형기 ▶위생관리팀장 박일호 ▶건강지원팀장 박성분 ▶의료원운영팀장 이경자 ▶분당구보건소 김성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 ▶ 김정희 ▶분당구보건소 ▶ 박은국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교육문화환경국 나용기 ▶맑은물관리사업소 오광성 ▶사회재난팀장 최순구 ▶자연재난팀장 이상규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청사관리팀장 고성식 ▶민원조정팀장 권규영 ▶녹색건축팀장 김우순 ▶건축1팀장 박규원 ▶전통시장개발팀장 민경두 ▶계량기관팀장 지강만 ▶하수시설팀장 김명남 ▶도시주택국 김학삼 ▶도시개발사업단 남영우 ▶분당구보건소 김필환 ▶맑은물관리사업소 김열중 ▶농업기술센터 이혁규

이겨낸 인천Utd, 지켜낸 자부심



인천Utd 선수단이 FA컵 시상식에서 준우승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김도훈 인천Utd 감독. <사진=인천Utd 제공>

FA컵 준우승 마감

김도훈 감독, 교체선수 셋 투입
이호균 동점골 뒤 종료 전 실점

올해 K리그 돌풍을 일으킨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올 시즌 또 하나의 목표였던 FA컵 우승이 안타깝게 날아갔다.

인천은 지난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2015 KEB하나은행 FA컵' 결승에서 후반 25분 이호균의 천금 같은 동점골이 터졌음에도 경기 종료 5분여를 버티지 못하고 내리 2골을 허용하며 1-3으로 패했다. 이로

힘겨운 사투 끝 익망

재정난에 선수 이탈 등 악재 속
팀워크로 공격적 득대축구 재편

써 FA컵 준결승까지 무실점으로 장난이래 첫 결승 진출과 함께 우승까지 바라본 인천은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인천은 이날 전반 33분 서울 다카하기에게 골문으로부터 21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오른발 슈트로 선제골을 내줬다. 그러나 후반 초반 김도훈 감독은 3명의 교체선수를 모두 사용하는 승부를 걸었고, 승부수가 그대로 맞아떨

어지면서 후반 25분 케빈의 머리를 맞고 떨어진 볼을 교체된 이호균이 오른발 터닝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때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인천은 후반 종료 5분여를 남기고 서울의 아드리انو와 몰리나에게 연속으로 골을 허무하게 내주며 인천의 FA컵은 준우승으로 끝이 났다.

올 시즌 '미생'으로 시작한 인천은 '완생'으로 끝났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기적을 만들었다. 인천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감독 경질, 선수 이탈, 구단 매각 등 시즌 시작 전부터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강등권으로 거론됐다. 김도훈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는 초반 8경기 연속 '무승' 기록으로 흐르며 한때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내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단이 똘똘 뭉친 인천은 결국 K리그 상위 스플릿까지 위협하는 전력으로 시민구단의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득대축구'를 부르짖으며 시즌을 보낸 인천은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성남FC에 덜미를 잡히며 상위 스플릿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미 잔류를 확정된 인천의 행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만했다.

인천의 시선은 FA컵을 향했고, 상위 스플릿 진입 실패 직후 치러진 전남과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2-0으로 승리, 창단 첫 결승에 올랐다. 기적은 FA컵 준우승으로 마감했지만 그들은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

최유탉 기자 cyt@khihoilbo.co.kr

“우리는 자랑스러운 2등”

김도훈 감독 '준우승 가치'

“스포츠에서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선수들은 1등보다 자랑스럽게 기억될 것입니다.”

‘2015 KEB하나은행 FA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김도훈(45·사진)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 자리에서 “누구나 잘 알듯이 많은 어려움 속에 여기까지 왔고, 그것을 우리는 해냈다”며 “결승전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데, 이것은 우리 선수들이 일궈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고마울 뿐이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올 시즌을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주전급 선수들의 유출, 봉급 연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팀 창단 후 최대 FA컵 최고 성적을 거둔 인천의 준우승은 아마도 그 이상의 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온 것은 선수들과 팬들의 힘”이라고 말한 김 감독은 “올해 FA컵 준우승, K리그 1부 리그 잔류라는 결과는 매 경기 불꽃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비록 찌지만 이번 경험이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영광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또 “이 모든 게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라며 “팀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이 잘 참고 여기까지 왔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적도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솔직히 우승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결승전에서 패하니 허무한 생각도 든다”면서도 “스포츠에서 2등은 기억되지 않지만, 이번 우리의 2등은 그 어느 우승보다 값지고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최유탉 기자 cyt@khihoilbo.co.kr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회 | 경기 종합우승 10연패·인천 6위

경기 신기록 40개로 최다 금메달 위업

수영 조원상 등 다관왕 56명 배출
인천은 목표치보다 두 계단 하락
론볼서 유일하게 종목우승 쾌거

체육 용도 경기도가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10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장애인체육 메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경기도는 1일 강원도 강릉실내종합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이 대회 첫날부터 5일동안 선두를 질주한 끝에 금 148개, 은 119개, 동메달 115개로 총 22만9천971점을 획득, 서울을(15만6천84점·금 69, 은 98, 동 93)과 대전시(15만5천151점·금 84, 은 69, 동 75)를 크게 앞질러 대망의 종합우승 10연패를 앞서는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이로써 도는 이번 대회에서 장애인체전 참가 사상 최다 금메달을 수확한 것은 물론 지난 2004년 달성했던 9연속 우승을 포함, 통산 19차례 정상에 오르는 막강 전력을 과시했다.

도는 이 대회 ‘메달밭’ 육상에서 8연패를 달성해 종합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당구와 배드민턴이 나란히 6연패, 유도과 볼링 각각 4연패, 농구·탁구·테니스가 종목우승하는 등 26개 정식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이 우승했다. 골볼과 론볼·수영·조정·파크골프 등 5개 종목이 준우승을, 사이클이 종목 3위에 각각 입상했다. 신기록 부문에서도 수영에



강원도 강릉실내종합체육관에서 1일 막을 내린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10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장호철 종합감독과 허범행 전문체육과장이 종합우승기와 우승컵을 시상대에서 들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서 세계신기록 1개를 수립했고, 수영·양궁·역도·육상·사이클에서 20개의 한국 신기록과 한국타이 기록 1개, 대회신기록 18개 등 모두 40개의 신기록을 쏟아냈다. 다관왕 부문에서는 수영의 조원상(수원시장애인체육회)과 이인국(안산시), 양궁 이억수(성남시)가 5관왕에 등극한 것을 비롯해 4관왕 2명, 3관왕 13명, 2관왕 28명 등 모두 56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대회 최종일 도는 축구 남자 11인제 청각장애 경기선발이 대구를 3-1로 꺾고 우승했고, 탁구 여자단체전 시각장애 오픈과 남자 단체전 청각장애, 남자 단체전 지적장애 TTT1~5, TT6~10, 남자 단체

전 지적장애 등에서 나란히 우승하며 또 종합우승에 금을 보냈다. 테니스 여자 단식 지적장애 오픈에서 박주연(수원시)과 흥선 단식 오픈(경주)의 김규성도 동반 우승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인천시는 금 78, 은 51, 동메달 60개로 12만8천631점을 얻어 당초 목표였던 4위보다 두 계단 떨어진 종합 6위를 차지했다. 양궁의 구동섭이 6관왕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역도와 사이클·수영·테니스·론볼·볼링에서 3관왕 8명, 2관왕 13명을 각각 배출했고, 펜싱에서 박천희가 대회 참가 사상 첫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

거를 이루는가 하면 좌식배구도 지난해 3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시는 26개 정식 종목 중에서 론볼이 유일하게 종목우승한 가운데 골볼 남자가부 1위를, 시각축구 전맹부도 부별 1위에 올랐다. 시는 이날 배드민턴 남자단식 BMSTL 1 김찬만이 금메달을, 복식 BMSTL1과 BMSTL2에서 김정철·황덕현 조 및 김창만·백동규 조, 여자복식 IDD(지적장애) 고선미·지은혜 조, 론볼 흥선 3인조 B4의 김희준·문재명·채수영 조 등이 나란히 우승하며 금메달을 수확했다. 강릉=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종합우승까지 장호철 경기 종합감독에 들다

전력 분석→선수 육성→강훈 지원 추위에 경기력 저하 위기 전던넨 힘

“열악한 환경적 요인을 딛고 종합우승 10연패를 이룬 것은 경기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 승리입니다.”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10년 연속 종합우승을 이룬 경기도선수단 장호철(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종합감독은 “대회 종합우승으로 10연패와 더불어 통산 19회 정상에 오른 것은 장애인체전 개최 이래 최다 기록”이라며 “이는 경쟁 시도에 대한 철저한 전력 분석과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보다 체계적인 강화훈련을 위해 적극 지원과 선수, 가족, 가맹 경기단체의 헌신적인 지원 등이 하나가 돼 이뤄 낸 성과였다”고 덧붙였다.

장 종합감독은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으로 장거리가 많아 장애인 선수들이 이동 경로의 고통을 겪고,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선수단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이를 이겨내 결국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특히 “올 대회에서 추진한 체계적인 선수 관리와 가맹단체에 자율성 부여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을 발판 삼아 더욱더 많은 개선점을 찾아내 내



년 11연패에 이어 20연패로 이어갈 수 있도록 체육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내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내 31개 시·군 중 아직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은 11개 시·군이 내년 중 체육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종합감독은 끝으로 “앞으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축제를 마련하고 장애인 1인1개 종목 참가 등을 권장해 나가는 데 도민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경기 G-스포츠박람회 성료... 생활체육 재미 공유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2015 NEXT경기 G-스포츠박람회’(이하 박람회, 10월 31일~11월 1일)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스포츠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도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생활체육 동호인은 물론 가족, 연인을 위한 체험행사가 어느 때보다 풍성했다.

박람회는 크게 3개 구역(스포츠체험존, 공연존, 전시존)으로 나눠 진행됐다. 체험존에서는 한국 경기와 뉴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스포츠를 도민들이 직접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공연존에서는 화려한 벨리댄스와 어린이

즐거움 공연단의 경이로운 줄넘기 묘기는 물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 등 큰 재미를 선사했다. 무료 체험 분석과 운동처방은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심연규 기자

오늘의 경기

◇2(월) ▶ 여자축구=WK리그 챔피언결정전 1차전 인천대교-인천현대제철오후 7시-인천종합운동장 ▶ 프로배구 남자부=대한항공-KB손해보험오후 7시-인천 계양체육관 ▶ 테니스-한국실업연맹전 2차 서산대회(서산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코트) ▶ 여자농구=삼성생명-우리은행오후 7시-용인실내체육관

신한은행 커리, 종료 11초 남기고 반격 골밀슛

시즌 첫판 국민은행에 1점 차 승리

인천 신한은행이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시즌 첫 경기에서 1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신한은행은 1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첫 경기에서

종료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다 69-68로 청주 국민은행을 제압했다.

모니크 커리가 24점째 리바운드 12개를 잡아내고, 윌미지가 13점을 넣어 신한은행의 승리를 이끌었다. 종료 2분여를 남기고 63-66으로 끌려가던 신한

은행은 커리의 활약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커리는 종료 2분 14초 전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했고, 34초를 남기고는 골밀슛을 넣어 신한은행은 67-66로 앞서갔다. 국민은행이 강아정의 자유투 2개로 다

시 1점차로 앞서가자 신한은행 커리는 골밀슛으로 반격, 11초를 남기고 69-68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국민은행은 작전 타임을 부른 뒤 역전을 위한 공격에 나섰지만 아이없는 패스미스가 나오며 승리를 신한은행에 넘겨줬다. 최유탉 기자

맛벌이 자녀 '폰' 노출 심각... 집·학교서 중독 예방교육 절실

본보·푸르미가족봉사단,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대책 토론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미추홀복지와 푸르미가족봉사단, 기호일보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본보 최유석 사회부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제갈원영 인천시 의원과 김용수 인천시교육청 장학사, 김현민 마전중 교사, 심지영(고교생 학부모)씨, 이혜니(고잔고)양, 김우석 플러스팩 사업2팀장 등이 참석해 각 분야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실태와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제갈원영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인천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서울은 인터넷 중독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문상담센터를 6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50여억 원이 드는 운영비 역시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의 청소년은 서울보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갈 의원은 "일단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스마트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심층적이면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내년 3월 인천에도 스마트폰 대응센터

가 생길 예정이며, 이 기관의 활동에 시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용수 장학사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대중화와 정보통신문화의 일상화에 따라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도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병리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도정보사회의 사회병리 현상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가 통제력 배양과 함께 학교와 가정에서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방법 교육 및 중독 예방 교육,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의 프로젝트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학생과 접하고 있는 김현민 교사는 "스마트폰의 심각성을 알고 주위에서 자제를 독려해 주



청소년 스마트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본보와 푸르미가족봉사단 공동주최로 지난 30일 인천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는 이들이 있는 학생들과는 달리 맛벌이 가정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의 심각성을 알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1학년과 초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심지영 씨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부모들은 자신들의 편의

를 위해 스마트폰을 자녀들에게 오히려 안겨주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들이 양육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인식을 하루빨리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며 "그런 후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제시 및 공간 마련, 학교에서의 권장도서를 현실에 맞는 서적(스마트폰 중독 관련) 권유, 언론 등 매스컴에서의 스마트 폰 중독 심각성에 대한 보도 확대 등이 나름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스마트

인천시, 인터넷중독 대책 전문내년 3월이나 대응센터 개설돼
'폰' 안기는 부모 훈육 개선부터 학생 스스로 제어하도록 교육을
기술적 차단 개발 관심 가져야

폰을 강제로 빼앗아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잠시 단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일 뿐"이라며 "지금 스마트폰 중독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원격 차단 장치, 스마트폰 사용 제한 앱 등 여러 가지 제도와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으며, 디지털 교과서 보급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우석 팀장은 "요즘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IT기술자들도 공감하고 있어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돼 스마트폰 중독에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기술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며 안타까워했다.

김현연 기자 khy@khihoilbo.co.kr



인천동부교육청, 학부모지원단 워크숍 가져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이 그동안 운영한 '동부아름드리 학부모지원단'의 활동에서 나온 각종 정보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동부아름드리 학부모지원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지원단의 역량 강화 지원과 학교교육 참여지원사업에 대한 사례 공유를 통한 우수 사례 확산 및 화합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꽃누르미 압화, 연잎밥 짓기 등 체험활동과 음악과 해설을 통한 영화 감상 등 부모 역할을 재조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학부모지원단 김윤숙 씨는 "이번 워크숍으로 다시금 부모의 역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인천서부교육청-도래미마을 도농상생 협약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강화 도래미마을과 도농 간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활동을 약속하는 '1사(社) 1촌(村) 농촌사랑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서부교육지원청과 도래미마을은 연 1회 이상 도농 교류 행사를 개최하며, 서부교육지원청은 도래미마을의 농번기 일손 돕기 및 농산물 직거래, 체험활동 홍보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직원 30여명은 일손 돕기 참여와 함께 도래미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고구마·배·순무김치 등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손홍재 교육장은 "이번 만남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서부교육지원청과 도래미마을 간 소중한 인연으로 오랫동안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연천교육청 위센터, 중학교 3곳서 맞춤상담

연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곡중·군남중·대광중학교 등 3곳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 찾아가는 1:1 맞춤 상담'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1:1' 맞춤 상담은 색채 및 도형 심리검사와 스트레스 검사 등 다양한 간이 심리검사로 자신의 강점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간단한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담 현장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기간 진행된 상담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 결과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인 개입 및 추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천=정동진 기자 dsc@khihoilbo.co.kr

성남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점검

시도교육청, 협력방안 논의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2015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성남교육지원청 현안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성남시장, 도·시·의원, 학교장, 민간단체·학부모·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성남시의 교육 현안인 '지속가능한 마을교육 공동체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혁수 성남교육장은 현안 의제에 대한 기초 발언에서 지역 꿈의 학교, 교육지원봉사센터의 봉사분야와 안전 관련 봉사자의 역량 강화 연수, 2013년 설립된 북정고 교육협동조합 등 도교육청의 마을교육 공동체 성남지역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강철 기자 iproc@khihoilbo.co.kr

이러 동 단위의 마을교육 공동체와 지역청소년센터, 20년 마을교육 역사를 가진 작은도서관 등 성남의 자생적 마을교육 공동체를 소개했다. 또 시와 협력해 2012년부터 총 6개 마을로 운영되고 있는 함께 크는 마을, 개방된 학교도서관 등 성남의 풍부한 마을교육 재원을 설명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지역에 산재된 마을교육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을교육 공동체들이 조직적이고 긴밀하게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공간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인천 N 방송

상품이 폭발하는 영상 공모전

2015 영상왕 콘테스트

- 참가자격 : 제한없음
- 공모주제 : 인천 (인천과 관련된 모든 소재)
- 접수일정 : 10월 12일 ~ 11월 29일 / 7주간
- 제출자료 : 참가신청서, 동영상파일 각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자세한 사항은 본 광고 하단 인천N방송 접속 후 공지사항 참조)

▶ 인천N방송 참여 혜택

지역신문 오늘의 화제뉴스 보기	전문기자의 현장뉴스 시청	시민이 직접 만든 영상부터 관광, 행정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	남인천방송 내 인천N방송 프로그램 (올림픽채널) 시청 가능	대학 방송학과 작품 등 고품질 영상 시청
---------------------	------------------	--	--	------------------------------

▶ 인천N방송 참여 방법 ■ 웹사이트 : www.incheonNtv.com ■ 스마트폰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인천N방송] 앱 검색 ■ 서비스문의 : (032)250-2142-3

인천을 알리기 위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여주세요

1등(1명) : 55인치 삼성 커브드 TV

2등(2명) : 13인치 LG노트북

3등(3명) : 아이패드 에어2

4등(5명) : 샤오미 스마트 밴드

5등(10명) : 샤오미 보조배터리

재임 당시 뇌물수수 혐의
김학규 전 용인시장 구속

김학규 전 용인시장이 재임 당시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체포돼 조사를 받던 김 전 시장에 대해 수원지법으로부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이던 2012년 용인시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서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하던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이 당시 측근 등을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8일 김 전 시장을 체포하는 한편, 김 전 시장과 보좌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요양급여 5억 상당 부정수급
군포총, 요양병원 원장 구속

군포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수역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등)로 요양병원 원장 A(4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아버지이자 의사인 B(7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식당조리원을 요양보호사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 지원금(노인장기요양급여) 5억 5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요양병원에서 청구한 급여를 보험공단이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강보험금 편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포=박원규 기자 wkp@khihoilbo.co.kr

수능 앞두고 도내 일부 고교 선물비 명목 1·2학년 전체에게 모금활동 물의

전통과 강제 사이... 갈림길 선 학교들

모금액 최고 5000원 수준... 수백만 원 상당 학생회 자체적 운영
사용내역 불투명해 일부 학생 반감... 도교육청 “기부강요 안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를 앞두고 경기도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3학년 수험생들의 수능선물비 명목으로 1·2학년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 잡음이 일고 있다.

모금 금액은 보통 1천~5천 원 사이로 액수가 크진 않지만 1·2학년 전교생 전체에게 돈을 걷다 보니 ‘강제성’이 있다는 의견과 ‘전통 유지’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 A고등학교는 몇 해 전부터 1·2학년 재학생들에게 5천 원씩 걷어

간식과 도장 등 수험생 수능선물을 마련해 왔지만 최근 “강제성을 띤다”는 한 학생의 민원으로 모금 활동을 중지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 모금이 강제성을 띠고 있을 뿐더러 학교나 교사의 개입 없이 학생회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몇몇의 학생회 임원들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모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포천시 B고등학교 학생회의 경우도 최근 수능선물비 마련을 위해 학생

회 30여 명에게는 2천원, 1·2학년 전교생에게는 1천 원씩의 돈을 모금했다. 이 학교의 1·2학년 정원은 700여 명으로 돈을 모두 걷게 됐을 때 모이는 금액은 70여만 원에 이른다.

B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모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옮겨 가져 먹기로 모금에 동참, 선배를 응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마저도 잃어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일산 C고등학교는 작년까지만 1·2학년 전교생에게 수능선물비를 걷었지만 투명성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학생회 임원들만 일정 금액을 걷고 나머지는 학

교 자체 예산으로 수능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포천시 B고등학교 학생회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돈을 내야 하는 후배들의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통을 생각해 동참해줬으면 한다. 영수증 공개를 원한다면 기꺼이 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통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전교생에게 돈을 걷는 것은 문제지만 강제성을 띠지 않는 선에서 수능선물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hyun@khihoilbo.co.kr



결혼 이주여성들 요리솜씨 어필까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1일 ‘세계인과 함께 희망을 꿈꾸는 하하(HaHa) 페스티벌’이 열려 결혼 이주여성들이 각국의 음식을 요리하고 있다.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페스티벌은 경기북부 지역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등이 참가해 쌀을 재료로 한 요리경연과 각국 전통공연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날뛰는 물품사기범 잠자는 피해방지법

‘계좌 지급정지’ 법적 근거 없어
現 보이스피싱·대출사기만 보호
전자상거래 늘며 관련 범죄 급증
법·제도 ‘제자리걸음’ 개정 시급

경찰이 인터넷 등 물품사기범의 계좌지급정지를 제재 하지 못해 피해 확산 방지에 애를 먹고 있다. 현행법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를 제외한 물품사기 등은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1일 분당경찰서와 기업은행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사기범죄로 구속됐다 지난 9월 출소한 사기전과 2명의 이모(20)씨가 범행에 사용한 4개 은행(우리·하나·신한·기업)계좌에 대해 범죄계좌 등록 요청과 함께 입금 및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지난달 23일 발송했다.

그러나 3개 은행만 해당 계좌지급을 정지시켰고, 기업은행은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 기업은행 측은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다 해도 물품사기 등의 계좌지급정지는 현행법령상 제외하게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물품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과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은 10여명에 달하지만 이 씨를 붙잡기 전까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분당경찰서 수사팀은 “물품사기로 구속됐던 이 씨가 당시 동일 계좌(기업은행) 사용을 인정했고, 피해 접수 등 증거가 명백한데 규정을 들이대며 안해 주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 씨의 소재도 불분명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찰의 협조 요청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은행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물품이나 도박사기 등은 사실상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찰이 초법률적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반대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며 “경찰 업무에 당연히 도움을 주고 싶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khihoilbo.co.kr

음식서 이물질 나왔다 상습공갈男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식당 주인 등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끝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며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횟수도 100여 차례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6월 청국장 제조 공장에 전화를 걸어 “수원에 있는 마트 주인인데 손님이 청국장에서 나온 플라스틱을 먹고 병원에 갔다”며 “병원비 10만 원을 입금해 주지 않으면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공장 주인에게서 10만 원을 받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172차례에 걸쳐 1천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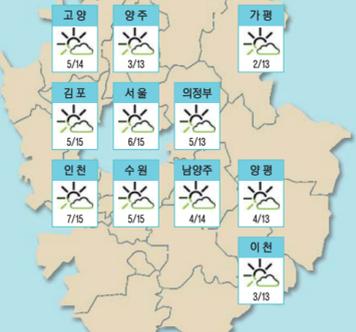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오늘의 날씨

11월 2일(월)

해돋이 06:57 | 해넘이 17:34

달출몰 22:57 | 달정지 12:18



상쾌한 공기 가벼운 발걸음

구름 많겠음. 아침 최저기온 2~7도, 낮 최고기온 13~15도 분포.

바다날씨 (오전)			강수확률 (%)			
종류	풍속	파고	지역	오전	오후	
시해	북서~북	4~9	0.5~1.0	안천	30	10
남해	북서~북	5~8	0.5~0.5	수원	30	10
동해	서~북서	5~9	0.5~1.0	동두천	30	10
				이천	30	10
				영평	30	10
				강원	30	10

제공 Kweather www.630.co.kr



남동국가산업단지 소방시설관리업

1호 등록업체!

상문의 070.7452.77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42 (논현동 444-5 53B 5L) Tel_032)859.5001 Fax_032)859.5909 www.nareaneng.com

제2013-1호 소방시설전문관리업등록기관

산업단지 전문 소방점검대행

- 소방시설안전관리(대행)
- 소방시설점검(종합, 작동)
- 소방시설유지보수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의 오작동에 대한 신속기동반 운영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 기술전문인력 배치로 소방안전관리 대행업무
-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실시 지도
- 각종 민원으로 인한 소방서와의 업무처리
- 점검중 발견된 경미한 불량에 대한 보수실시
-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선임 대행

손 가는 곳 많고 돈 나올 곳 적으니... 세금으로 땀질

돈 먹는 인천 지역 공원 ■ 수익성 없는 공원, 미흡한 관리

최근 인천에 다양한 공원이 조성되면서 인천지역 공원·녹지 면적이 5천887만8천㎡로 전국 3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간 유지·관리비만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각 지자체는 이를 충당할 공원 수익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의 세금에 기대는 실정이다. 시민들에게 공원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닌 부담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본보는 효율적 공원 운영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7만 평 공원이 하나의 정원이 된다.’ 지난 9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테라스 하우스 분양 기획사가 청약을 앞두고 내건 광고 문구 중의 하나다.

기획사는 견본주택을 오픈한 지 3일 만에 236가구 분양계약을 끝냈다. 평균 분양가가 ㎡당 1천500만 원인 이 테라스 하우스는 지금 프리미엄만 5천만 원 이상 붙어있는 상태다.

이 단지의 분양 성공 이유 중 하나는 양떼목장으로 이름 난 56만1천641㎡ 규모의 ‘늘솔길 공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는 공원을 이용한 특수수를 누르고 있는 셈이다.

늘솔길 공원은 한화가 239만6천㎡의 터에 아파트 1만2천여 가구를 짓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조성한 뒤 2012년 남동구에 기부채납한 근린공원 중 하나다.

남동구는 기부채납받은 에코메트로 안 공원(105만5천464㎡)을 유지·관리하는 데 연간 8억~9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곳 공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김미현 골프연습장 등 임대수입과 접사용료

년 관리비 수백억... 이익사업 부족 시민 헬스 투입 불구 관리비 모자라 불법납부 단속 부실 등 ‘구멍’ 발생

로 5억 원 정도다. 나머지 3억~4억 원은 세금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남동구는 공원 121곳(548만9천㎡)과 녹지 174곳(50만㎡)을 관리하고 있다. 남동구의 공원·녹지 관리비는 연간 33억 원에 달한다. 수입은 지출의 18.1~21.2%인 연간 6억~7억 원 수준으로 태부족한 형편이다.

공원 유지·관리 표준단가는 ㎡당 3천~4천 원 선이다. 548만9천㎡의 공원을 조성한 남동구는 연간 164억~219억 원을 투입해야 제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남동구의 실제 유지·관리비는 표준단가의 20%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 수익성 없는 공원 운영으로 점점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처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의 공원

■ 구·구별 도시공원 조성 현황 (단위: ㎡)

구	개소	면적	조성율
중구	27	7,454,223	15%
동구	34	262,970	78%
남구	71	1,739,473	36%
서구	212	8,360,872	15%
남동구	176	8,240,359	73%
부평구	155	4,510,682	62%
연수구	75	2,018,812	27%
계양구	81	1,478,565	38%
강화군	11	891,833	32%
경제청	216	14,351,490	22%
총계	1,058	49,309,278	34%

유지·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송도에 위치한 수변공원 근처에는 평일 오후나 주말이면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인천대 송도캠퍼스 인근 유수지 주변은 낚시꾼들과 그들의 차량으로 넘쳐난다. 곳곳에 ‘낚시 금지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플래카드가 설치돼 있어도 사람들은 이를 무시한 채 낚시를 즐긴다. 인파들이 꼬이면서 불법 주차와 쓰레기 투기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관할청의 단속이나 관리는 등장 대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이용객들을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김희연 기자 khy@kohoibo.co.kr



수변공원, 호수공원, 테마공원 등 인천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원들이 조성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무분별한 이용과 관리 미흡으로 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말인 지난 3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수변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한쪽에 쌓여 있다. 최만규 기자 cmg@kohoibo.co.kr

인천 버스노조 5일 파업 예고

인천지역 버스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인천지역노조는 지난 30일 마친 조합원 투표에서 22개 사업장 2천581명 조합원 중 97.1%인 2천507명의 찬성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노조 인천노조에는 인천 전체 버스기사의 약 65%인 2천808명이 가입돼 있어 파업이 시작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노조는 “인천 버스기사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6대 도시 중 최하위권의 임금 수준과 장시간 운전로 시달리고 있다”며 “휴식 공간 부족으로 피로가 쌓이고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소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노동쟁위 조정기간인 4일까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인천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요구사항은 만근일(기본근무일)수 24일에서 22일로 단축, 임금총액 9.6% 인상, 운전기사 상여금 통일 등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ohoibo.co.kr

평생교육원 설립 불법대행 적발

인천부평경찰서는 1일 평생교육원 설립을 불법으로 대행한 혐의(사기) 등으로 브로커 김모(4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 등에게서 배운 수법으로 교육원을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수신했던 혐의(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5)씨 등 평생교육원 대표 19명과 강모(43)씨 등 어린이집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국 121개의 평생교육원 설립을 불법으로 대행하며 운영 비법을 전수하는 조건으로 26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생교육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불법 대행해 주고 관리·감독을 피해 국가보조금을 받는 수법까지 이씨 등에게 전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생교육원을 운영한 이씨 등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면서 교육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훈련비 39억3천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전국 102개소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경열 기자 kik@kohoibo.co.kr

“조희팔 오른팔 강태웅 아냐” 북도면민 “인천공항 지원금 턱도 없다”

<웅진군>

바실런, 기자간담회 가져 “전 리브 경영고문이 2인자”

수조 원대 피해를 입힌 조희팔 사기 사건의 실질적인 2인자는 최근 중국에서 검거된 강태웅이 아니라 인천에서 활동한 김모(48)전(리브) 경영고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전 바른경제경제실천을위한시민연대 대표는 1일 바실런 부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태웅은 조희팔 오른팔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피해액이 70% 가량인 인천지역의 김모를 2인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출신의 김씨는 리브 법인의 전신인 ㈜티투 대표이사를 맡아 수도권 일대 센터를 운영,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3년6월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당시 김씨 의 동생 현호(44)씨는 인천웰빙프라임센터장을 지내며 현금 자금 흐름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지만 최근 수사기관 수배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에서 모인 피해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 대표는 “2008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매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전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ohoibo.co.kr

인천시 웅진군 북도 주민들이 불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의 항공기 소음 피해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발표(분보 10월 30일자 1면 보도) 때문이다. 인천공항 소음 피해 금액이 연간 500억 원이 넘는 데 5년 동안 100억 원만 지원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란 이유에서다.

‘북도면인천공항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5년간 100억 원의 피해 대책은 터무니없는 지원 금

액”이라며 “이 역시 북도면 피해 지역 장봉도와 모도에는 연간 5억 원씩 지원되는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의 지원금이 중구 용유도와 웅진군 북도면에 각각 50% 가량 배분될 경우 북도면에는 5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피해 지역인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가 지리적으로 분리돼 마을별로는 5년 동안 25억 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25억 원에 달한다는 입장

이다.

대책위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공사가 지난해 거둬 들인 착륙료(2천332억 원)중 소음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예상한 금액이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사는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 등급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구당 주민지원사업비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타 공항 지역 주민들이 받는 지원금과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라며 “타 지역과 형

소음피해 525억 원 주장 “5년간 50억 지원이 웬 말” 공사 “형평성 고려된 결과”

평성을 생각해야 하는 국토부를 상대로 공사가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해 이뤄 낸 성과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소음대책에 대한 중기 계획’에 5년 동안 100억 원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편, 북도면 주민들은 1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7번 출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영종~신도 연륙교 ▶모도~장봉 연도교 설치를 요구했다.

안재균 기자 ajk@kohoibo.co.kr

www.kihoilbo.co.kr

2015 경인지방자치기호사진연감 발간

경인지역 지방자치시대의 역사

2015경인지방자치기호사진연감 발간

2015 경인지방자치기호사진연감은 경인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행정·활동상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매년 변모해 가는 경인지역의 변화된 발전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았습니다. 내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기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발행 | 기호일보
| 구입문의 | (032)761-0007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지정 기념

인천시민과 명사가 함께하는

애장도서 100선 

2015. 11.09(월)~11.29(일)

한국근대문학관

OPEN AM 10:00 CLOSE PM 6:00

